ISSN 2093-0844

October
2010. 10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 미 · 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경제동향 경기, 산업활동, 소비 및 물가, 수출입, 고용, 금융, 건설 및 부동산 / **경제일지** / **경제지표**

충청남도 CDI 충남발전연구원

2010년 10월호

발 행 인 안희정 · 박진도

편 집 위 원 이재관, 권희태, 조경연, 맹부영, 이인배, 한무호, 신동호, 김양중

집 필 진 총괄 백운성

경제동향 백운성, 신동호, 김양중, 김윤아

경제일지 하광학, 김범수, 박용진

외부집필진 남수중(공주대학교)

발 행 처 충청남도 · 충남발전연구원

주 소 314-140 충청남도 공주시 금흥동 101번지

연 락 처 (041) 840-1114, 1168 팩스(041) 840-1189

월간 충남경제의 파일은 충청남도(http://www.chungnam.net)와
충남발전연구원(http://www.cdi.re.kr)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ISSN 2093-0844

ISSN 2093-0844

월 간

충/남/경/제

Chungnam Economic Trends

Chungnam Economic Trends

CONTENTS

ISSUE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3*

FOCUS 미 · 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19*

경제동향 경제동향 (총괄) *29*

1. 경기
2. 산업활동
3. 소비 및 물가
4. 수출입
5. 고용
6. 금융
7. 건설 및 부동산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47*

경제지표

1. 국내 주요경제지표 *57*
2. 충남 주요경제지표 *59*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61*

부록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추이 *74*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76*

Chungnam Economic Trends

ISSUE

ISSUE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발전 방안

신 동 호 | 충남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1. 서 론

경쟁의 패러다임이 기업간 경쟁에서 네트워크간 경쟁으로 변화됨에 따라 기업간 상생협력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이는 정보통신의 발달과 더불어 경제의 지역화 및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경쟁이 심화되면서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대응보다는 경쟁력 있는 공급네트워크의 구축이 기업생존에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쟁구도가 기업간 경쟁에서 네크워크간 경쟁 그리고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양상이 변화됨에 따라 네트워크 내부 구성원들간 상호협력이 더욱 중요해지는 추세이다. 관련하여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윌리암슨(Oliver E. Williamson)교수에 의하면 “협력사와의 관계양상과 거래비용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엇갈리며, 위압적 계약관계보다는 신뢰에 기초한 계약이 더 효율적”임을 강조한 바 있다. 다시 말해, 개별기업간 경쟁에서 기업생태계간 경쟁으로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생태계 전체의 펀더멘탈을 강화시켜야만 지속적인 생존과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따라서 기존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수직적 관계가 상호협력하여 상호이익을 증진하는 상생 또는 수평적 관계로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대·중소기업간 거래관계가 기존 수직적 갑·을 관계에 기초한 zero-sum게임에서 수평적 상생협력에 기반한 Win-Win 관계로 전환해야 하며, 이는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와 자율적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의 토대를 구축해야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실적 인식을 토대로 첫째,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해소, 둘째, 대·중소기업간 선순환구조 정착, 셋째, 중소기업의 제품구매 촉진, 넷째, R&D개발 및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도내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2. 상생협력 관련 법제 및 추진시책

1)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相生協力)관계를 공고히 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를 해소하여 동반성장을 달성함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성장 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 법률상 "상생협력"이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受託企業)간에 기술, 인력, 자금,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의미한다.

동 법에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의 기본방향은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의 자율성 보장하고, 둘째,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익에 서로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을 촉진하며, 셋째, 공공기관과 중소기업간의 협력에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근거
기술협력	· 기술협력 촉진을 위한 기술개발 자금 지원 ·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을 이전촉진하기 위한 지원	· 동법 제9조 각항 · 기술의이전및사업화촉진에 관한법률 제10조
인력교류	· 인력교류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 및 인건비 일부 지원	· 동법 제10조 각항
자본참여	· 대기업의 자본참여 방안수립·시행 · 수탁기업의 기술개발, 설비투자 등 경영지원	· 동법 제11조 1항 ·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제2조
환경경영협력	· 기술·정보 등의 교류와 협력촉진 방안 수립·시행 · 협업화, 정보화 협력 촉진방안수립 및 지원 · 판로확대를 위한 협력촉진 및 지원	· 동법 제9조 각항 ·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관한법률 제2조

분야	주요내용	근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특례	·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불공정거래행위에서 제외)	· 동법 제13조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 제23조
상생협력 조사	· 상생협력실태조사 · 상생협력지수 산정·공표	· 동법 제14조, 15조 각항
우수기업 선정·지원	· 상생협력 우수기업 포상	· 동법 제16조 각항
협의회 구성	· 위탁기업별·지역별·업종별 수탁기업 협의회 구성 및 지원	· 동법 제17조 각항
임금격차	· 상생협력의 임금교섭 노력 지원	· 동법 제18조
공공기관 협력	·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 추진 · 전담 지원조직 설치·운영	· 동법 제19조 각항
협력재단 설립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설립	· 동법 제20조 각항

자료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관한법률」.

2) 중기청 상생협력 사업

① 상호이익이 되는 파트너십 문화 조성

대·중소기업간 파트너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중기청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으로는 ①대기업 구매를 조건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확대, ②대기업·정부간 공동 R&D펀드를 조성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확산, ③대기업·금융기관 연계 중소기업 지원펀드 조성 확대, ④모기업이 은행과 공동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협력업체의 원자재구입, 기술개발, 공장 신·증설 소요자금 등을 저리(시장금리보다 △1~2%)로 지원, ⑤싱글PPM 품질혁신 지원확대, 공정불량률 기준 추가 등 수탁기업 생산혁신 활동강화, ⑥납품 불량률 기준의 품질혁신 지도 외에 공정불량률 기준에 의한 지도 시스템과 등급별 인증제도 도입, ⑦K-Score를 모기업 맞춤형 지원이 가능한 지원방식으로 개선하는 것 등이 있다.

② 제도적 상생기반 조성

중기청은 대·중소기업간 협력을 시장자율에만 맡기기 보다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

근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납품단가 "조정협의제"를 도입하여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협력의 성과를 분석한 후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시장진출 시 유예기간을 연장(현행 2년 → 3년 + 3년 이내 추가연장)하는 등 "사업조정제도"를 개편하고,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이에 대한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③ 공정거래 관행 인식공유

대기업의 마케팅·기술노하우를 중소기업으로 원활하게 이전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CEO 좌담회(가칭 "상생사랑방")를 연 20회로 정례화하고, 지역별로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납품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대·중소기업 구매상담회를 개최(연 10회)하고 있다. 아울러 불공정거래 조사 확대 및 시정조치는 조사범위를 대형유통업체(백화점, 대형마트, 홈쇼핑)와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상습위반업체는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공공입찰 시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한편, 수·위탁분쟁 관련「법률자문」및「자율조정」기능을 강화하여 기업간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있으며, 우수 상생협력 기업과 수·위탁 거래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각각 포상확대와 인센티브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실제로 이들 기업에 대해서는 "아름다운 동행상"을 시상하거나 R&D 우대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3. 상생협력 부진 원인 및 국내외 협력사례[1)]

1) 상생협력의 부진원인

상생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는 중소기업의 저임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에서 형성·발전되어 왔다. 이로 인해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인식할

1) 상생협력사례는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에서 출간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전략과 과제」의 내용을 인용하여 정리함.

뿐 협력 동반자로서의 인식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실제로 대기업들은 중소기업 부품구매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는 시혜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 둘째, 대기업들이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기업경영방식을 단기수익 위주로 전환하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사업부별 성과평가방식도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기술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인해 기술혁신능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해 글로벌 혁신경제에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취약한 실정인데, 실제 중소기업 제품기술의 86.5%는 2년 이내 모방이 가능한 범용기술이라는 지적이 있다. 여기에 기업간 과당경쟁(가격인하 경쟁 → 채산성 악화 → 재투자 여력 감소 → 경쟁력 약화)은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약화시키는데 큰 몫을 하고 있다. 넷째, 기업문화측면에서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계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규칙에 입각한 관계보다는 힘의 우위에 의지하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이처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이 어려운 것은 상당부분 대기업이 그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현실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상생협력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영자원과 핵심역량을 보유·가용할 수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상생협력의 최대 관건은 대기업의 무조건적인 참여가 아니라 상생협력을 하지 않을 때에 비해 상생협력 참여시 더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며, 이는 대기업의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가장 큰 인센티브임은 물론이다.

2) 국내외 상생협력 사례

① 해외사례

• 도요타(Toyota) : 경쟁력 있고 공정한 파트너십 구축

도요타는 2000~2003년까지 30% 원가절감을 추진하는 "CCC(Construction of Cost Competitiveness) 21"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도 성과공유(Benefit Sharing)를 통해 부품업체에 적정마진을 보장함으로써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보여 왔다. 실제로 도요타의 내부 제조 비율은 25%이며, 나머지는 213개의 1차 부품업체와 분업적 네트워크를 통해 조달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강력한 원가절감을 추진하면서도 부품업체의 마진을 일정수준 보장함과 동시에 부품업체의 개방적 거래관계를 인정하는 등

도요타와의 전속적 거래관계를 고집하지 않았다. 그 결과 도요타도 성공하였을 뿐 아니라 부품업체들도 혁신적이면서 강력한 경쟁력을 지닌 기업으로 재탄생하는 상생협력의 모범사례를 창출하였다. 특히, 개방적 협력관계를 지원한 대표적 사례는 도요타가 지분의 24%를 보유하고 있는 덴소(Denso)를 들 수 있는데, 이러한 협력관계를 토대로 덴소는 2004년에 약 25조원 규모의 세계 3위 글로벌 부품회사로 도약하였다.

• 노키아(Nokia) : 벤처투자 및 전담조직을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노키아는 벤처링(Venturing)제도를 통해 중소벤처기업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유지하고 있다.[2] 구체적으로 노키아내 벤처지원 전담조직(Nokia Ventures Organization)은 7천억원 규모의 벤처캐피털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아가 울루테크노폴리스(Oulu Technopolis)에서 300여개 부품기업들과 상생적 협력을 맺으면서 지역혁신을 주도하는 등 지역혁신 클러스터의 중핵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다. 이처럼 부품업체와의 상생 네트워크를 육성한 결과, 노키아는 기업의 브랜드 네임을 넘어서 핀란드라는 나라를 상징하는 기업으로까지 성장하게 되었다.

• 인텔(Intel) : 투자펀드를 통한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인텔은 투자펀드를 활용하여 전략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텔 캐피털회사를 통해 인텔 펀드(Intel Fund)를 조성하고, 모바일, 인터넷, 디지털가전, 사무자동화, 차세대반도체 등 인텔칩을 사용하는 200여개 혁신 네트워킹 기술기업에 약 20억 달러를 자금을 전략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다시 말해,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함과 동시에 자사제품의 시장도 확대해 나가는 것이다. 아울러 인텔은 협력기업들의 새로운 시장진출을 지원하고,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상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있다. 이러한 전략적 파트너십에 힘입어 인텔은 완제품이 아닌 오로지 부품만으로 브랜드 가치 세계 5위의 위치에 오르는 성과를 낳았다.

• 벤츠(Bentz) : 아웃소싱 전자부품의 품질악화로 경쟁력 저하

벤츠자동차는 최근 영상지리정보시스템인 네비게이션과 통신모듈을 결합한 텔레매틱스 전장 시스템인 Command에 결함이 발생하여 미국시장에서 차량 2천대를 리콜한 바 있으며, 전장부품 불량으로 인해 벤츠의 내구성품질지수(VDS : Vehicle

2) 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사업타당성이 있는 아이디어를 가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제도.

Durability Study)가 곤두박질치는 경험을 하였다. 이로 인해, 세계적 자동차 품질전문평가기관인 J.D.파워사에 따르면, 벤츠의 VDS 순위는 1999년 3위에서 2004년에 28위까지 추락하기도 하였다.

• 미쓰비시(Mitsubishi) : 무리한 원가절감정책으로 대량 리콜사태

미쓰비시는 2000년 이후 닛산 추격과정에서 지나치게 원가절감과 개발기간 단축에만 주력하고 품질관리나 기술협력은 등한시하였고, 이 과정에서 2002년 미쓰비시 트럭 2만2,000대와 2004년 경자동차 8만대를 리콜하는 등 소비자 불만이 증폭되어 이로 인해 자본잠식은 물론 구조조정을 겪기도 하였다.

② 국내사례

• 기술역량 강화 및 고부가가치 창출형 상생협력 사례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한 사례로 뉴디스는 한국기술거래소의 기술이전설명회를 통해 LS전선의 기술을 소개받고 약 2개월여의 협상을 거쳐 LCD편광막 관련 특허 18건에 대해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과정에서 기술이전 조건은 선급금 없이 실시권자인 뉴디스가 특허 연차료를 부담하고 매출액의 일정부분을 경상기술료로 제공하여 뉴디스의 초기부담을 경감시켰다. 또한 기술공급 기업(LS전선), 도입기업(뉴디스), 기술지도자(개발자) 3자간의 계약을 통해 특허 이전 후 사업화단계에 진입할 때 기술노하우가 전수되도록 보장함으로써 기술도입 기업에 신뢰성을 제공하였다. 한편,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사례로 LG전자는 휴대폰의 고기능화 추세에 맞춰 주변기기의 성능을 향상시켜 수출경쟁력을 높이는 헤드셋 개발을 제안하였고, 삼신이노텍은 LG전자로부터 기술과 측정장비 등을 지원받아 제품개발에 성공하였다.

• 협력 중소기업 인적역량 강화사례

삼성전자는 미래의 지속적인 협력관계 유지를 위해 지난 2004년부터 '미래경영자과정'을 개설하여 협력업체의 최고경영자 후계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의 기본부터 경영혁신 교육에 이르기까지 이론교육은 물론 삼성전자의 현업부서에 6개월 이상 배치시켜 순환근무를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업계 최초로 대리점주 2세를 대상으로 하는 2세 경영자 교육프로그램을 실시 중이다. 한편, 두산중공업은 매년 사외업체를 대상으로 무료 용접사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매월 1회 이상 협력업체 관리자 및 작업자를 대상으로 불량사례, 품질규정 교육, 업체 방문·파견, 기술·품질지도를 시행하고 있다.

• 중소기업 자금운용 및 납품대금지급 개선사례

KT는 중소벤처 협력사에 대해 전액 현금결제하여 어음할인료나 수수료 부담을 없애 협력사의 유동성을 원활하게 하고 있으며, 기존 협력사에 대해서도 계약금액 2억원 이하는 전액 현금결제하고, 그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50% 현금, 50% 어음으로 지급하던 것을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현금결제하고 있다. 한편, 포스코는 협력기업 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저리대출을 지원함과 아울러 네트워크론 제도 운영, 추석자금 조기지불, 중소 직거래 실수요 기업의 현금결제, 현금D/C율 상향조정, 외상기간 최대 30일 이내 연장 등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다.

③ 시사점

해외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중소기업과 협력하여 원가절감을 추진하되 성과를 공유하고 협력업체의 시장자립을 보장하는 기업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혁신형 중소기업과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글로벌 아웃소싱에 과다하게 의존하거나 원가절감에만 주력하고 협력업체의 품질관리에 소홀하여 경쟁력 우위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최근 일부 대기업들이 현금결제 확대, 성과공유제 도입, 기술 개발지원 등 대대적인 협력업체 지원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원계획이 실제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고 있는지 효과가 검증되지 않고 있다. 특히, 대기업들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불공정하게 납품 단가를 인하하거나 불공정한 방법으로 납품업체에게 피해를 주는 사례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는 있으나, 아직은 제한적이며, 특히 상생협력의 측면에서는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다.

국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주요사례

부문	협력내용	사례
대중소기업 역량강화	공동기술개발을 통한 신기술·신제품 개발, 장비국산화	삼성전가연호전자 LED 핵심기술 공동개발
	대기업의 특허를 활용한 중소기업 기술 역량제고	LS전선 미활용 특허를 뉴디스에 이전
	대기업 기계·장비 중소기업 제공	SK텔레콤 중소기업에 통신장비 무상기증
	열린 혁신의 자세로 중소기업 아이디어 수용	LG필립스 협력업체 및 관련기술 보유업체 아이디어 수용
	기술컨설팅 및 기술인력 파견을 통한 역량제고	포스코 테크노 파트너십 제도 시행
	협력업체 임직원 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SK 협력사 임직원 교육을 위한 상생아카데미 운영
	모기업에 축적된 경영노하우 협력사에 이전	한화 모기업에 축적된 기술과 노하우 공유
	해외진출 협력업체의 현지활동 지원	현대기아차 슬로바키아 진출 협력업체 현지지원
	협력업체와 해외 공동진출	신세계 협력사와 중국시장 동반진출
	협력업체의 국내판로 개척 지원	롯데마트 중소기업 초청 박람회 개최
	협력업체의 해외판로 개척 지원	포스코 해외제철소 연계를 통한 해외판로개척 지원
	협력업체 생산성 행상을 위한 품질개선 지원	KT 중소협력사 대상 품질컨설팅과 인증지원
	공급사슬 내 정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포스코 외주파트너사와 ERP도입 지원
대중소기업간 신뢰구축	현금결제확대, 어음지급기일 결제기일 단축	GS칼텍스 납품 후 7일 이내 전액현금 결제
	시설운용자금, 중소기업 대출 등 자금 지원책 마련	삼성전자 자금지원 및 자본제휴를 통한 파트너십
	협력사 초청행사개최, 우수협력사 시상, 격려 등	KT 파트너스데이 개최, 우수협력업체 시상
	협력업체 근무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찾아가는 현장음악회 개최 등
	모기업과 협력사의 윤리경영 실현	KTF 윤리경영 및 상생협력제도 설명회 개최
	협력업체 애로사항, 불공정 거래 개선 프로그램 마련	KT 상생협력센터 개설
	공정거래 정착노력	LG전자 신규거래 신청절차 투명화
	성과공유제 시행	한전·포스코 성과공유제 도입확산 및 내실화
상생협력 확산 및 상생경영 정착	상생경영전략 구축, 판매데이터 제공, 품질관리 기술	정보공유, 윤리경영, 공공연구, 격려금, 상생펀드 등
	유통·건설업종으로 상생협력 확대	신세계, GS 상품박람회, 네트워크론, 파트너 컨퍼런스
	1차 → 2, 3차 협력업체로 협력확대	삼성, 현대차 등 현장혁신 및 품질봉사단활동
	전담조직 및 인프라 구축	현대차 등 19개 기업 상생협력전담조직구성

자료: 전경련중소기업협력센터(2007).

4. 상생협력 방안

1) 상생협력의 기본방향 및 과제

① 기본방향

상생협력은 기업 상호간에 Win-Win 할 수 있는 협력의 문화를 토대로 중소기업을 대기업의 동반자로 인도하여 기업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궁극적으로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기업생태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상생협력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 첫째,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의 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즉, 공동기술개발 및 대기업특허 이전 등을 통해 신기술과 신제품을 개발하는 등 중소기업의 기술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중소기업간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협력업체의 시설운용자금 및 중소기업 대출지원을 유도하고, 공정거래문화 및 윤리경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상생협력 확산 및 상생경영 정착을 위해 업종별로 상생협력의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상생협력의 경영전략 착근을 위해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끝으로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협력업체의 수익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② 대기업의 과제

상생협력은 장기적이고, 전사적이며, 가치창출에 초점을 두어야 실효적일 수 있음을 고려할 때, 단기적 관점의 일방적인 지원이 아니라 중장기적 관점에서 전사적 차원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한 대기업의 과제는 첫째, 상생협력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인식을 최고경영자에서부터 임직원에 이르기까지 함께하는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둘째, 한시적이고 단편적인 협력시책보다는 연구개발과 구매의 연계 등 다양한 사업들이 체계적으로 수립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셋째, 국내시장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해외시장으로 확대하여 동반진출을 도모함으로써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③ 중소기업의 과제

중소기업은 처음부터 파트너인 대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자구적인 변화와 혁신이 필요함을 인식해야만 한다. 그리고 상생협력을 통한 지원 이후에도 해당 부문에서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그에 따라 전략적인 의사결정이 이루어져한다. 아울러 궁극적으로는 기업생태계 전반에 걸쳐 상생협력이 이루어져야 함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의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기업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닌 상생의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 둘째, 생산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교육투자를 통한 인력양성과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병행해야 한다. 셋째, 경영혁신과 기술개발 등을 통해 핵심역량을 갖추어 대기업의 진정한 동반자 역할을 담당해야한다.

2) 협력방안

① 하도급 문제해소

고질적인 하도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측면에서 대안을 모색할 수 있는 바, 우선 도내 대기업과 협력사간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체결을 유도하고 협약내용에 대기업의 거래물량 유지 및 납품가격 안정화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중소기업의 안정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충남 하도급 119」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사업자가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하도급 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지방사무소」와 연계하여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를 근절해 나가야 한다. 한편,「하도급 계약 추정제도」 및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조기에 정착시켜야 한다. 동 제도는 구두발주로 인한 하도급 분쟁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일정요건을 갖출 경우 계약을 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로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자간 거래대금이 적정하게 반영되지 않을 경우 협상테이블에서 협의를 하도록 하고 원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다.

② 선순환 구조 정착

충남 상생협력 협의회를 조직하고 그 내부에 중소기업 관련 전문가, 기업, 유관기관 실무자 등을 포함한 연구회를 조성하여 상생경영을 위한 간담회나 컨퍼런스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여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문화를 선도하고 확산시키는 역할을 부여한다. 아울러 대·중소기업간 성장격차를 완화하고 상호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민간 차원의 상생협력기금 조성이 필요하며, 이는 충남도와 대기업차원에서 출연금을 조성하여 기업간 협력사업을 보다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재원으로 활용한다. 끝으로 건강한 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대기업 내 상생협력 전담조직의 구축을 유도하거나 공급사슬(supply chain)별 공동발전 연구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③ 제품구매 촉진

중소기업의 제품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기존 공공구매를 확대하는 것은 물론 SBIR프로그램(美)등 구매촉진 프로그램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3] 구체적으로 도 산하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액을 확대하되, 산하기관의 공공구매 조기집행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입장에서 필요한 구매품목을 미리 설정하고 이를 기술개발과 상호연계할 수 있도록 구매조건부 신제품 개발사업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구매담당자들의 중소기업 제품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과 제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정보망을 구축하고 구매담당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중소기업구매제도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켜야 한다. 아울러 영세기업이 공공조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조합의 요건을 완화하고, 제품의 특성에 따라 계약입찰 방식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케팅 측면에서 규모에 따른 비교열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으로 중소기업들간의 공동사업은 전문 컨설팅과 연계하여 맞춤형으로 지원해야 한다.

한편, 판로개척을 위해서는 해외시장조사 및 바이어 발굴지원, 해외무역사절단 및 해외전시박람회 참가지원, 충남 우수상품 전시상담회 개최,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개최, 수출보험료 등을 통해 지원하되,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의 국내외

3) SBIR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가 기술개발 및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타당성 검토, 기술개발, 사업화의 3단계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임.

판로개척 지원을 유도할 수 있도록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포상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④ R&D개발 및 자금지원 협력

핵심기술의 공동개발은 공급가치사슬 및 분업구조를 고려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술수요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대·중소기업간 공동기술개발을 유도하고 지원해 나아가야 한다. 나아가 중소기업이 활용하기에 불완전하여 추가적으로 실용화가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연구 및 실험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술상용화를 추진하고 대기업으로 하여금 협력업체의 신제품 개발비용 지원 및 휴면특허를 이전토록 유도한다. 자금지원부분에서는 기존 대기업의 네트워크론 활용을 확대·유도하고, 나아가 기존 네크워크론 이용 시 제한요건인 신용보증수수료 및 납품 후 10일 이내 대출요청이 가능한 사항을 없애는 플러스 네트워크론 활용을 권장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펀드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저리대출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Chungnam Economic Trends

FOCUS

FOCUS

미·중간 환율이슈와 글로벌 불균형

남 수 중 | 공주대학교 교수

위안화 환율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대응

○ 금년 8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80억 달러를 기록하여 중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더욱 증대될 것으로 전망

- 미국 상무부는 8월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2008년 10월의 279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주장
-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 적자 누계 규모는 금년 1~8월 1,734억 달러에 달해 금년 전체 무역수지 적자 규모가 작년의 2,268억 달러를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졌음

○ 따라서 미국은 중국이 고의적으로 위안화 절상을 억제하고 있다는 의구심을 표시하면서 과거보다 강력한 대중국 무역제재를 고려

- 실제로 중국산 동 파이프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 미 하원에서는 9월 29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이 통과
  * 이에 대해 중국은 미국산 닭고기에 대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등 반발하고 있음
- 최근에는 EU와 IMF,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도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국제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함

○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고려하는 배경에는 중국의 위안화 절상 억제 정책이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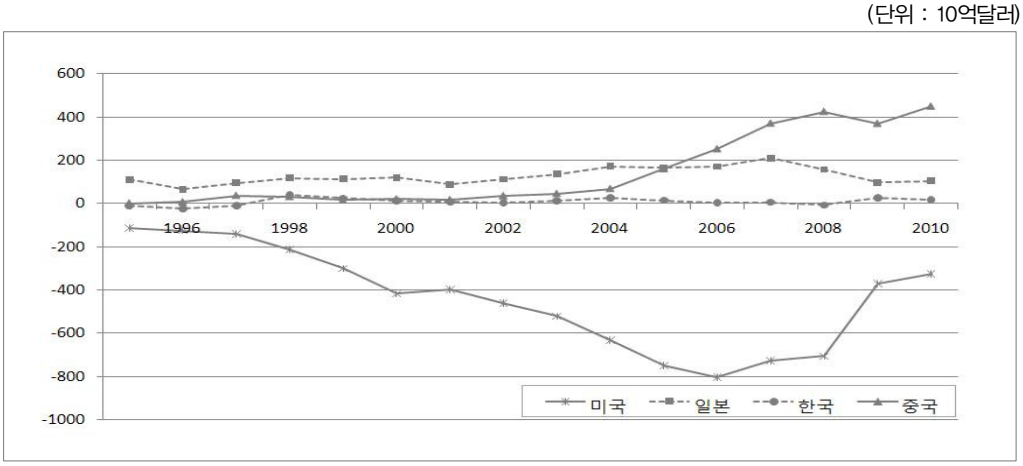
- 미국의 경제정책연구소(EPI)의 분석에 따르면, 중국 위안화는 미 달러에 대해 최대 40%이상 절하되었으며, 중국의 환율 조작으로 인해 미국산 제품의 경쟁력이 상실되면서 최소 24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임
- 또한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는 위안화는 향후 2~3년에 걸쳐 평균 20~30%까지 절상시켜야 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500~1,2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할 수 있고 제조업의 일자리 역시 최소 50만 개 이상 만들 수 있다고 주장
- 특히 최근 미국경제는 실업률이 9%를 초과하고 금년 경제성장률 둔화까지 예상되고 있는바, 금년 11월 미국 의회의 중간선거를 앞둔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한 대중국 압력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입장임

○ 그러나 오바마 행정부가 실제 대중국 제재에 나설지는 의문이라는 지적도 적지 않음

- 그동안 미국은 미-중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극단적인 대립은 피해왔으며 세계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여 공개적인 압박보다는 조용한 외교적 타협을 선호해왔음
- 이러한 미국의 태도는 북한, 이란문제, 기후변화 협약,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등 국제적인 사안의 해결을 위해 중국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임
- 또한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관세를 부과하여 미국기업에게 피해를 주거나 중국산 제품의 가격이 상승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음

미국, 동북아시아(한 · 중 · 일)의 경상수지 추이

(단위 : 10억달러)



주 : 2008년 이후는 예측 및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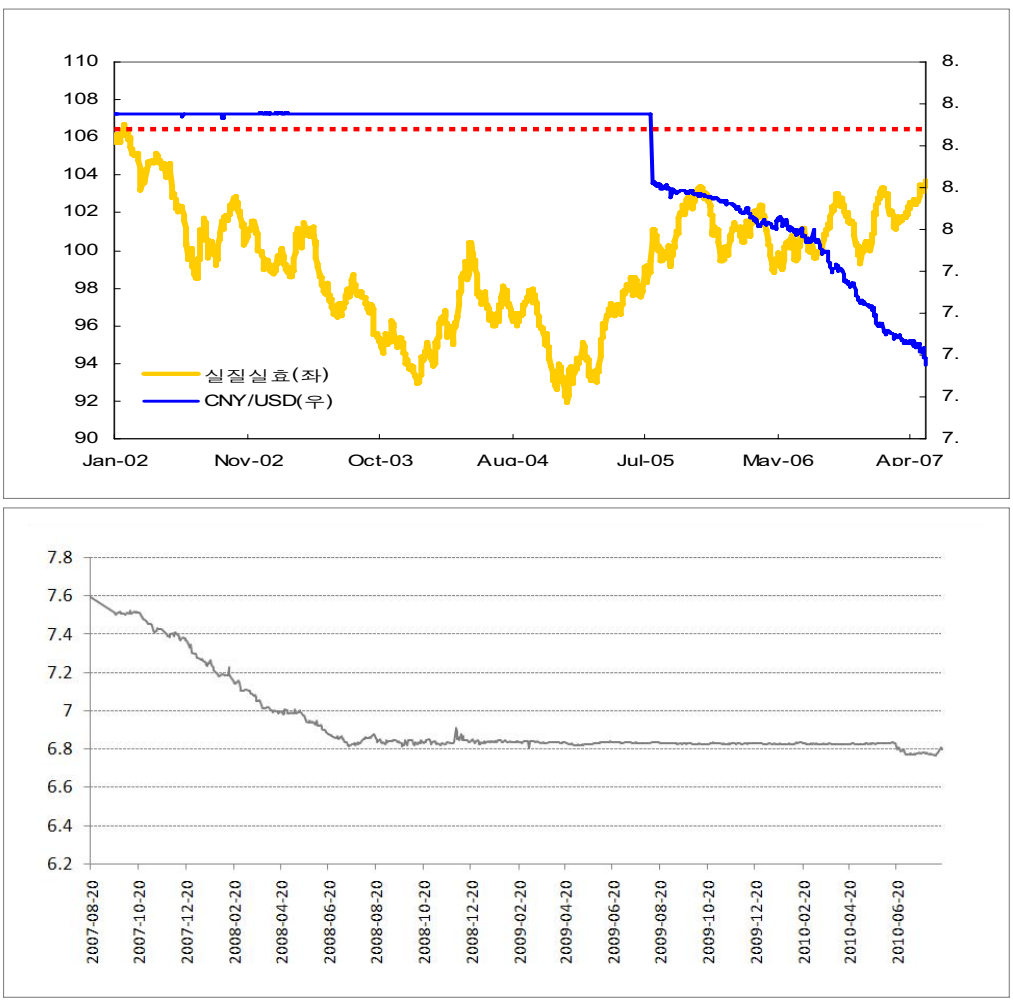
자료 :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09.

중국의 입장과 정책 변화 가능성

○ 중국은 미국 등 국제적인 압력에도 불구하고 위안화 환율의 급격한 절상을 용인하지 않고 있음

- 위안화 환율은 2005년 7월 복수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한 이후 3년간 약 21% 내외로 절상되었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는 사실상의 고정환율제도를 운영
- 금년 6월부터는 미국 등의 압력과 세계경제 회복에 따라 약 2%정도의 절상을 용인함

중국 위안화의 환율 추이



자료 : Bloomberg.

○ 중국은 환율제도와 운용 방향을 경제여건에 따라 조정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최근 더욱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파악됨

- 중국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압력과 마찰에도 불구하고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을 용인하지 못하는 배경에는
- 첫째,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이 자국 수출 둔화를 야기하여 이를 통한 국유기업 채산성 악화 및 실업자 증가에 따른 사회적 불안정 확산 가능성을 우려
  * 위안화 절상시, 중국의 수출업체는 달러 표시 수출품 가격을 인상하거나 고용을 축소하여 수익을 보전하려는 조치가 불가피하며, 이는 농촌에서 이주한 약 2억 명이상의 이주 노동자들이 귀향하는 것을 의미하며 엄청난 사회적 불안정을 야기할 것임
- 둘째,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점진적인 경제 구조조정 정책에도 불리하게 작용
  * 중국정부는 안정 성장으로의 경제정책 전환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장률 둔화와 실업 증가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인데, 위안화의 급격한 절상은 거시경제 운용 자체를 힘들게 할 뿐 아니라 핫머니 유입 등의 금융시장 개방과 자유화의 충격을 조절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음
- 셋째, 미국 등 국제사회의 절상 요구에 굴복하여 다른 민감한 문제도 양보할 수 있다는 인상을 자국민들에게 줄 수 있기 때문임
  * 향후 중국은 지적재산권, 비관세 장벽, 에너지 및 환경 분야에서 국제적인 책임을 요구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쉽게 공개적으로 압력에 굴복할 수만은 없음

○ 그러나 중국 역시 환율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점진적 방식의 위안화 절상을 용인할 전망

- 중국은 내부적으로도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 외환보유액 증가에 활용 문제, 핫머니 유입 방지 등을 위한 절상 필요성이 대두됨
- 외부적으로도 국제사회와의 마찰이 세계적인 '중국경계론'으로 확산되는 것을 우려

○ 따라서 중국은 적정한 수준에서 위안화 절상 압력을 수용할 가능성이 높음

- 외부 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한 차선책으로 G20, IMF 등의 공개적인 회담을 통한 환율 조정보다 미국과의 비공개 협상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측됨

미-중간 환율 갈등의 영향과 글로벌 불균형 문제

○ 중국정부의 금년 6월 19일 '환율제도 유연화' 발표 이후 다소 완화되던 환율 갈등이 다시 재연되는 조짐

- 환율제도 유연화 발표이후에도 중국의 위안화 환율 절상은 소폭(2%)에 그치고 있어 미국의 불만이 가중됨

○ 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및 중남미 신흥국가들이 환율 갈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전세계 주요 국가 환율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음

- 엔/달러 환율은 1995년 5월 이후 최저치까지 하락하였으나, 최근 일본정부의 시장개입으로 인해 일시적인 반등 조짐이 나타남
- 9월 15일 엔/달러 환율은 최저치였던 82.88엔에 근접하다가 시장개입 이후 85.9엔으로 반등
- 한국의 원/달러 환율은 위안화 절상 등의 영향으로 인해 5월 4일의 1,115원 이후 최저치인 1,120원대까지 하락

○ 그동안 세계경제는 경쟁적으로 수출을 통해 경기를 활성화 해왔으나, 최근 들어 다소 주춤한 상황

- 미국과 일본은 금년 1/4분기 이후 경제성장률이 점차 둔화되는 추세이며, 중국 등 신흥국들 역시 상대적인 고성장세로부터 둔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아래표 참고)

세계 주요 국가들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08	2009	2009 3/4	2009 4/4	2010 1/4	2010 2/4
미국	0.0	-2.6	1.6	5.0	3.7	1.6
일본	-1.2	-5.2	-1.0	4.1	4.4	0.4
유로	0.6	-4.1	0.4	0.1	0.2	1.0
중국	9.6	8.7	9.1	10.7	11.9	10.3

자료 : 각국 통계청 참고.

○ 세계 각국은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 수단이 제한적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대규모 재정지출을 실시할 경우,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축될 수 있으며, 금리 인하도 이미 한계에 직면

- 세계 각국의 GDP 대비 재정수지는 미국이 -11.0%, 일본이 -9.8%, EU가 -6.8%, 중국이 -3%인 것으로 IMF 등의 자료를 통해 확인됨
- 결국 수출이 세계 각국이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일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며, 이는 경쟁적인 통화 가치 하락 및 상승 억제 조치를 선호하는 배경이 되고 있음

○ 또한 중국과 미국은 글로벌 불균형 해소에 대한 미묘한 시각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음

- 글로벌 불균형 문제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무역수지 흑자와 미국의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에서 파생된 것이며 세계경제의 불안정을 확대시키고 금융위기를 촉발시키고 있다는 것이 미국 학자들의 주장임
- 특히 미국 연준위 의장인 버냉키(Bernanke)는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급증으로 대표되는 글로벌 불균형의 책임이 미국이 아니라 동아시아, 특히 중국에 있다고 주장
-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의 마틴 울프 역시 글로벌 불균형 문제 해결을 미국에만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안정적인 국내 채권시장 육성이 필요한 신흥시장국가들, 특히 중국은 더욱 유연한 환율제도로 이행해야 하고 내수확대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
- 반면, 중국에서는 많은 학자들이 글로벌 불균형과 관련하여 미국과 중국, 양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에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

○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립은 미 달러의 위상 변화와 중국의 막대한 외환보유액에서 출발하며, 이를 통해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음

- 미국은 상당기간 동안 재정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로 인해 채무가 증대되고 대규모 달러 발행에 따른 기축통화로서의 국제적인 위상과 신인도가 하락하여 왔음
- 세계 각국은 달러 표시 채권 비중을 축소하고 있으나(다음표 참고), 아직은 달러를 대체할 국제적인 기축통화가 없어 본격적인 달러 투매는 발생하지 않고 있음
- 중국은 최대의 달러 보유국인 동시에 8천억 달러 이상의 미국 정부채권 보유한 국가인바, 단기적으로는 외환운용의 달러 의존을 축소하고 위안화의 국제결제통화로의 위상 제고와 장기적인 국제 기축통화화를 추진할 것으로 예상

- 미국과의 국제 정치 및 경제적 갈등은 중국의 달러 의존도 탈피, 국제 기축통화화 전략 등에서 촉발될 가능성이 높음

세계 각국의 해외자산의 통화별 구성 추이(연말 기준)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미 달러	61.7	62.8	64.5	61.6	58.5	57.2	60.1	59.0	55.4	58.2
유로	16.5	16.8	18.1	20.9	23.5	23.5	21.4	21.8	23.0	22.1
엔	7.8	7.4	5.2	5.0	5.2	5.4	4.5	3.3	3.7	3.8
파운드	4.5	4.1	4.2	4.2	4.6	5.1	5.1	5.9	7.0	5.5
스위스프랑	2.9	2.7	2.6	2.5	2.4	2.2	2.1	2.2	2.2	2.2
기타	6.6	6.1	5.5	5.7	5.8	6.4	6.8	7.7	8.7	8.3

자료 : BIS.

- 막대한 외환을 보유한 중국은 이미 국제금융시장에서 위력적인 존재로 부상하였는데, 최근 중국정부가 엔화 표시 채권을 매입하자 일본 정부는 엔화 자산 유출 및 수출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여 외환시장에 개입하여 국제사회의 비난에 직면한 바 있음

각국의 외환보유액 현황(2010년 8월말)

(단위 : 백만달러)

지역/국가	외환보유액	지역/국가	외환보유액
세계	10,008,392	러시아	461,200
중국	2,454,300	사우디아라비아	410,300
일본	1,050,235	대만	370,108

자료 : IMF.

한국에 대한 시사점

○ 미국과 중국의 환율 갈등은 한국에게 있어서 본격적인 G2 체제의 등장을 의미한다고 해석될 수 있음

- 향후 지속될 미 달러 위상의 약화와 중국 위안화 환율 절상 및 국제화는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을 증폭시키는 리스크 요인임을 배제할 수 없음
- 현재로서는 양국간 결국 합의에 도달하여 그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평가되지만,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중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미국 국채 투매를 시도하는 '미-중 환율전쟁 시나리오'도 제기된 바도 있음

○ 한국 등 신흥시장 국가들은 국제금융시장의 리스크 발생에 따른 대외적인 충격을 완화하는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

- 특히 한국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현재 달러 비중이 63%에 달하는 외환 운용을 다각화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또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환금성이 높은 해외의 실물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확대하는 국제 포트폴리오 다양화를 모색
- 중국의 자금과 자본시장을 적극 활용하기 위한 중국 금융시장 진출을 모색하는 동시에 국제금융시장으로 투자처를 다양화하려는 China Money를 유치하여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임

○ 한국기업의 입장에서는 무역결제통화를 향후 강세가 예상되는 위안화로 지정하거나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또한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은 현지 차입구조를 조정하여 향후 발생할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을 것임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동향

8월 시도별 주요 경제지표

구분	산업활동(계절조정)			소 비	물 가(9월)		대외거래		고 용		
	생산지수	출하지수	재고지수	대형소매점 판매지수 (불변지수)	생활물가지수	소비자물가지수	수출액 (백만달러)	수입액 (백만달러)	경제활동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실업률 (%)
전국	142.4	137.0	134.4	110.8	120.0	117.6	36,965	35,247	24,836	24,005	3.3
서울	92.5	93.4	151.6	109.6	119.4	117.0	3,783	8,640	5,184	4,962	4.3
부산	123.5	122.3	160.4	116.3	120.6	117.9	812	907	1,619	1,569	3.1
대구	121.6	123.4	135.3	86.4	119.6	117.1	400	265	1,204	1,166	3.2
인천	110.2	113.3	98.5	108.0	119.9	118.2	1,655	2,278	1,385	1,326	4.3
광주	148.4	148.0	104.7	109.5	120.2	117.7	899	423	688	663	3.5
대전	119.0	117.4	170.1	100.2	119.7	117.5	271	219	735	710	3.4
울산	115.8	113.6	106.7	104.8	121.5	119.1	5,135	5,396	554	538	2.9
경기	168.1	147.6	195.4	109.6	120.8	118.2	6,968	7,201	5,938	5,715	3.8
강원	117.4	116.3	147.7	149.7	119.1	117.1	113	85	717	704	1.8
충북	158.8	163.3	181.2	110.9	120.3	117.9	871	519	774	760	1.8
충남	**231.8**	**211.8**	**171.8**	**133.0**	**120.4**	**118.2**	**4,933**	**2,071**	**1,032**	**1,006**	**2.4**
전북	135.2	135.4	132.8	124.9	120.6	118.2	755	322	841	827	1.7
전남	118.3	121.5	115.2	145.6	120.2	118.0	2,384	2,916	884	862	2.4
경북	111.8	108.0	154.0	128.9	120.5	118.1	3,676	1,602	1,411	1,373	2.7
경남	151.7	154.5	117.8	122.0	120.7	118.3	4,303	2,386	1,585	1,543	2.6
제주	105.8	106.2	83.7	159.0	119.2	116.5	7	17	287	283	1.5

경제동향 [총괄]

경기

❑ 8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4로 전월대비 0.1%p 상승

❑ '09년 5월부터 16개월 연속 상승국면 지속

산업활동

❑ 8월 산업생산지수(+3.9%) 및 제품출하지수(+4.5%) 모두 전월대비 증가세 전환

❑ 영상·음향및통신, 기계및장비, 의약품 등이 생산·출하 증가에 기인

소비 및 물가

❑ 8월 대형소매점 및 대형마트 판매액은 전년동월 8.0% 증가, 전월대비 4.2% 감소

❑ 9월 전월대비 소비자물가 1.0% 상승, 소비자의 체감물가를 반영하는 생활물가지수 1.3% 상승

수출입

❑ 8월 충남의 수출은 대중국수출품과 자동차수출 비중 증가로 전년동월대비 38.6%로 상승세 지속 및 전월대비 0.7% 상승(49억33백만달러 수출)

❑ 수입은 원유, 석탄, 석유제품 등의 꾸준한 증가세로 전년동월대비 25.3% 증가, 전월대비 0.3% 증가(20억71백만달러 수입)

❑ 8월 무역수지 28억62백만 달러로 전월에 비해 증가

고용

❑ 8월 경제활동인구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전월대비 0.5% 감소, 취업자 101만명

❑ 8월 실업인구 전년동월대비(-4.2%) 및 전월대비(-15.2%) 각각 감소, 실업률 2.4%

건설 및 부동산

❑ 8월 건축허가면적 전월대비(-16.1%) 감소 및 착공면적(-6.3%) 전월대비 감소세 지속

❑ 9월 주택매매가격 전월대비 0.0%로 보합, 주택전세가격 0.9% 증가

1. 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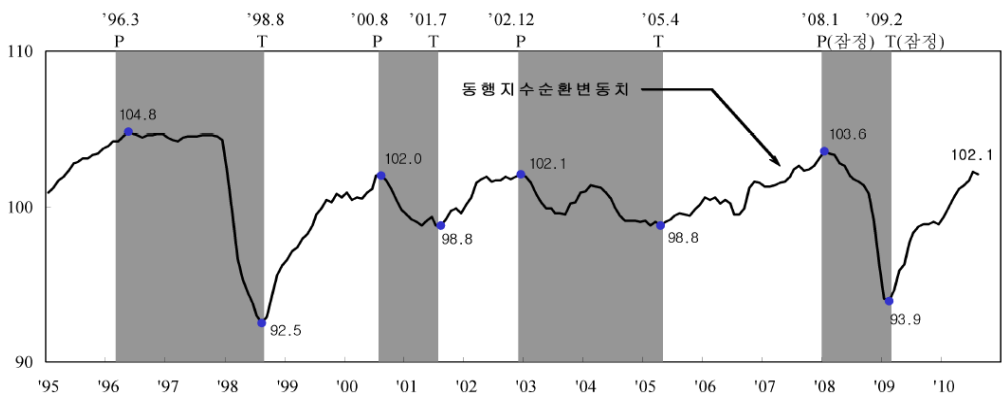
[전국 경기동향]

○ 동행종합지수는 서비스업생산지수, 건설기성액 등 4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도소매업판매액지수, 내수출하지수, 수입액 등 4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3%** 상승

- 현재의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102.1로 **전월보다 0.1p 하락**

전국 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구분	'10.1월	2월	3월	4월	5월p	6월p	7월p	8월p
○ 동행종합지수	126.2	127.7	128.9	130.1	131.0	132.0	133.2	133.6
· 전월비(%)	0.8	1.2	0.9	0.9	0.7	0.8	0.9	0.3
○ 순환변동치	99.3	100.0	100.6	101.1	101.4	101.7	102.2	102.1
· 전월차(p)	0.4	0.7	0.6	0.5	0.3	0.3	0.5	-0.1



· 회색부분은 경기수축기임.

○ **선행종합지수**는 건설수주액, 재고순환지표 등 5개 지표가 감소하였으나, 구인구직비율, 종합주가지수 등 5개 지표가 증가하여 **전월대비 0.2% 상승**

- 향후 경기국면을 예고해주는 **선행지수 전년동월비**는 5.9%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선행종합지수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 등으로 **전월보다 0.8%p 하락**

전국 선행종합지수

구분	'1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 선행종합지수	127.4	127.1	127.3	127.1	127.8	128.2	129.3	129.6
· 전월비(%)	0.3	-0.2	0.2	-0.2	0.6	0.3	0.9	0.2
○ 전년동월비	11.3	10.3	9.7	8.6	8.0	7.1	6.7	5.9
· 전월차(%p)	-0.3	-1.0	-0.6	-1.1	-0.6	-0.9	-0.4	-0.8

자료 : 산업활동동향, 통계청.

[충남 경기동향]

○ 2010. 8월중 동행종합지수는 133.7로 수입액을 제외한 모든 지표가 상승하여 전월대비 0.4% 상승

○ 현재의 경기를 보여주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대비 0.1%p 상승한 102.4를 나타내 전월의 상승세를 이어감

- 경기순환국면을 나타내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2008년 4월부터 13개월 연속 하락세를 나타내다, 2009년 5월 이후 16개월 연속 상승국면을 지속하고 있음

동행종합지수 추이

(2005=100, %, %p)

구 분	'1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 동행종합지수	127.6	128.8	129.7	130.4	131.2	132.3	133.1	133.7
· 전월비	1.0	0.9	0.7	0.5	0.6	0.8	0.6	0.4
○ 순환 변동치	100.1	100.7	101.1	101.3	101.5	102.0	102.3	102.4
· 전월차	0.7	0.6	0.4	0.1	0.3	0.5	0.3	0.1

주 : p는 잠정치임.

○ 8월 동행종합지수를 구성하는 수입액은 감소를 나타냈으며 이외 지표는 모두 전월대비 증가

- 비농가취업자수(0.0%), 산업생산지수(1.7%), 대형소매점판매지수(0.3%), 전력사용량(0.9%), 수출액(2.8%) 증가, 수입액(-0.6%)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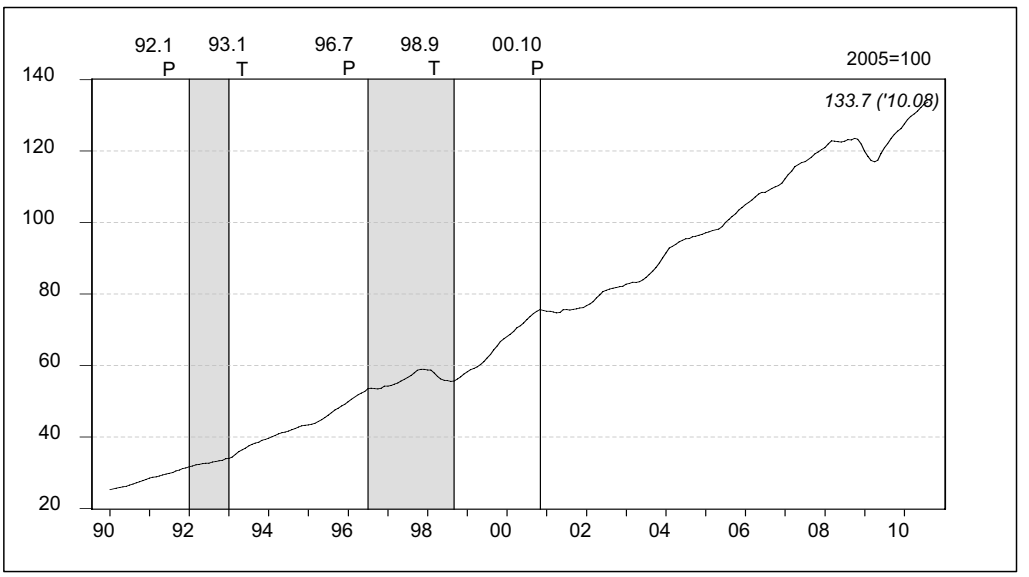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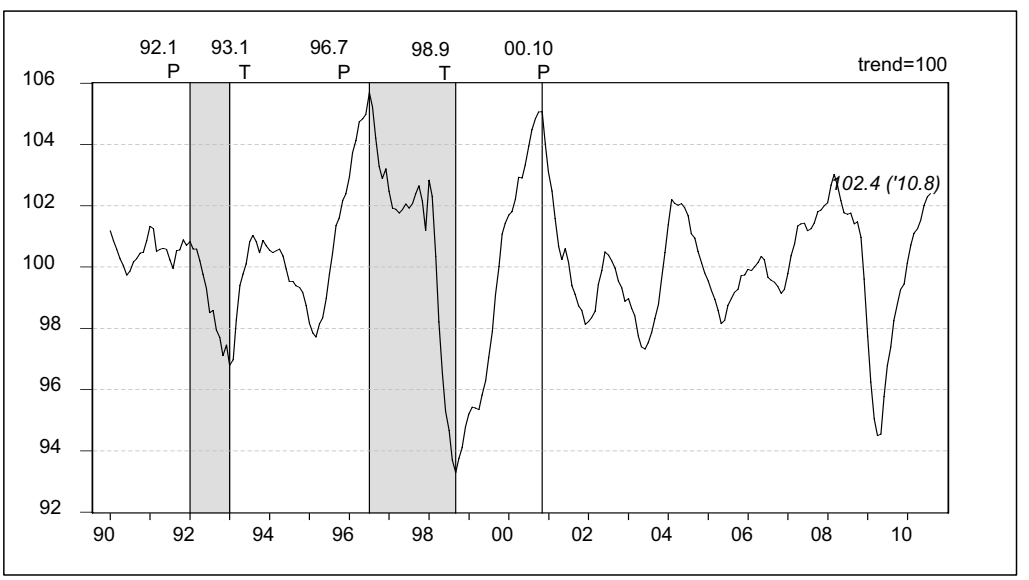
구 성 지 표	'10.1월	2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비농가취업자수	0.0	0.4	0.6	0.7	0.3	0.3	0.2	0.0
산업생산지수	1.3	0.6	0.7	0.5	1.2	1.3	0.9	1.7
대형소매점판매지수	2.3	2.3	-0.4	-2.1	-2.5	0.9	2.5	0.3
전력사용량	2.7	2.4	2.2	1.8	1.8	1.3	0.6	0.9
수출액(실질)	2.3	1.7	2.3	1.2	2.3	1.2	2.9	2.8
수입액(실질)	2.9	2.3	1.0	0.8	2.6	3.5	0.4	-0.6

주 : 증감율은 계절조정 및 불규칙 조정한 계열임.

충남 동행종합지수(Coincident Composite Index)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 of Coincident CI)



[기업경기전망(BSI)]

○ 2010. 10월 대전·충남지역 업황전망 BSI와 자금사정전망 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전월보다 증가

- 업황전망 BSI : 제조업 9월 98→10월 99, 비제조업 9월 78→10월 86
- 자금사정전망 BSI : 제조업 9월 95→10월 99, 비제조업 9월 89→10월 94

○ 대전·충남지역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은 9월과 10월 모두 전월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자금사정은 10월 들어 다소 개선되며, 비제조업의 업황 및 자금사정은 9월의 부진세가 10월에는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조사

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0.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99	101	100	98	100	98	99(99)	+1(−5)
매출	108	114	116	116	112	113	114	+1
생산	110	113	117	115	114	112	110	−2
신규수주	105	106	108	110	110	110	105	−5
채산성	95	97	94	93	94	93	92	−1
제품재고	99	94	98	99	100	98	102	+4
인력사정	88	90	90	89	86	88	84	−4
자금사정	101	102	99	95	93	95	99	+4
외부자금수요	110	107	112	115	111	114	120	+6
자금조달사정	100	100	103	99	93	95	100	+5

주 : ( )내는 전국 기준.

비제조업의 주요 실적 BSI 추이

구분	'10.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전월대비 변동폭
기업경기	87	95	90	90	85	78	86(86)	+8(+1)
매출	94	100	97	94	92	91	100(100)	+9(−1)
채산성	93	93	87	90	89	86	88(93)	+2(+4)
인력사정	91	92	92	94	97	97	93(90)	−4(−3)
자금사정	88	91	90	90	94	89	94	+5
외부자금수요	114	116	119	118	116	115	116	+1
자금조달사정	94	97	95	97	98	91	95	+4

주 : ( )내는 전국 기준.

$$\text{BSI*(Business Survey Index)} = \frac{(\text{긍정적인 응답업체수} - \text{부정적인 응답업체수}) \times 100}{\text{전체응답업체수}} + 100$$

* BSI가 기준치인 100인 경우 긍정적인 응답업체수와 부정적인 응답업체수가 같음을 의미하며, 100이상인 경우에는 긍정응답업체수가 부정응답 업체수보다 많음을, 100이하인 경우에는 그 반대임을 나타냄.

자료 : 대전·충남지역 기업경기 및 자금사정 조사결과,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2. 산업활동

[산업생산]

○ 2010. 8월 충남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6.1%, 전월대비 3.9% 각각 증가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금속가공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의약품,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하였음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산업생산지수	195.4	225.1	214.6	216.6	222.7	224.8	226.8
전년동월비	25.3	36.0	25.0	22.2	20.2	14.3	16.1
전월비	3.7	3.2	-3.4	2.6	3.4	-0.3	3.9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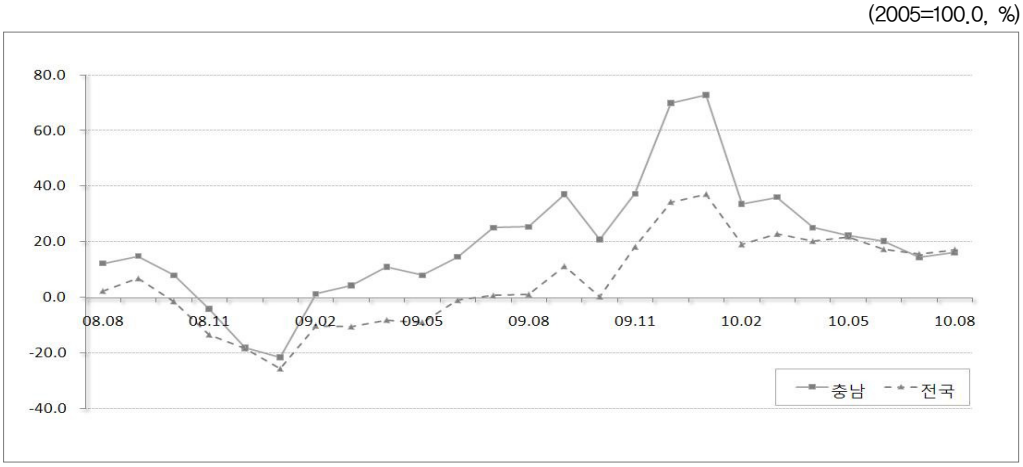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1.6) : TV용LCD, 노트북용LCD, 백라이트유니트 등
- 기계및장비(+112.5)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감속기, 반도체조립장비 등
- 의약품(+108.7) : 의약품
- 제1차금속(+47.1) : 아연도강판, 냉연강대, 석도강판, 주물 등

[감소업종]

- 의료정밀및광학(-57.3) : 광선치료기, 무선원격조절기, 안경렌즈
- 금속가공제품(-5.8) : 건물용금속공작물, 새시문 및 창틀, 날붙이제품, 드럼관

전국 및 충남 산업생산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출하 동향]

○ 2010. 8월 충남의 출하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9.3%, 전월대비 4.5% 각각 증가

- 의료정밀 및 광학기기, 기타운송장비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기계 및 장비, 자동차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출하지수		174.3	207.0	195.5	196.1	204.5	203.0	208.0
	전년동월비	18.1	33.0	22.6	20.2	19.2	14.7	19.3
	전월비	2.4	4.2	-4.1	2.9	3.8	-0.4	4.5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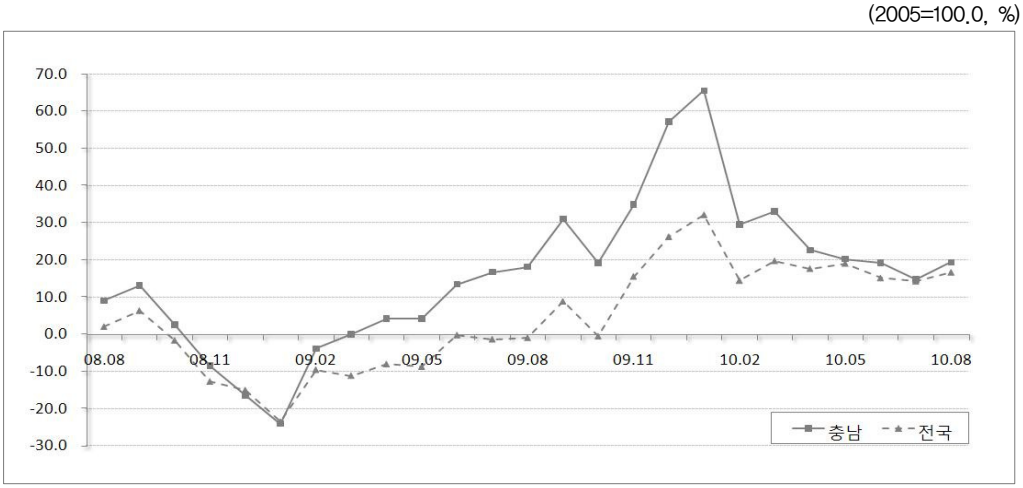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5.3) : TV용LCD, PDP, 백라이트유니트, 노트북용LCD 등
- 기계및장비(+133.1) : 평면디스플레이제조장비, 감속기, 열처리로 및 전기로 등
- 자동차(+20.5) : 중형승용차, 차체부품, 자동차용내연기관, 기관용부품 등
- 제1차금속(+27.6) : 아연도강판, 열연대강, 석도강판, 주물 등

[감소업종]

- 의료정밀및광학(-67.9) : 무선원격조절기, 광선치료기, 안경렌즈
- 기타운송장비(-68.5) : 특수선박(비상업용)

전국 및 충남 출하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재고 동향]

○ 2010. 8월 충남의 재고지수는 전년동월대비 25.9% 증가, 전월대비 -2.1% 감소

- 화학제품, 섬유제품 등의 업종에서 감소하였으나, 영상·음향 및 통신, 자동차, 전기장비, 제1차금속 등의 업종에서 증가

(2005=100.0, %)

구분	2009년	2010년					
	8월	3월	4월	5월	6월P	7월P	8월P
재고지수	136.7	140.6	146.0	156.3	162.6	177.1	172.1
전년동월비	8.7	4.5	6.3	19.9	32.8	41.2	25.9
전월비	8.9	0.9	6.6	6.4	6.2	6.2	-2.1

자료 : 광공업생산동향, 충청지방통계청.

○ 전년동월대비 주요업종별 증감(%)

[증가업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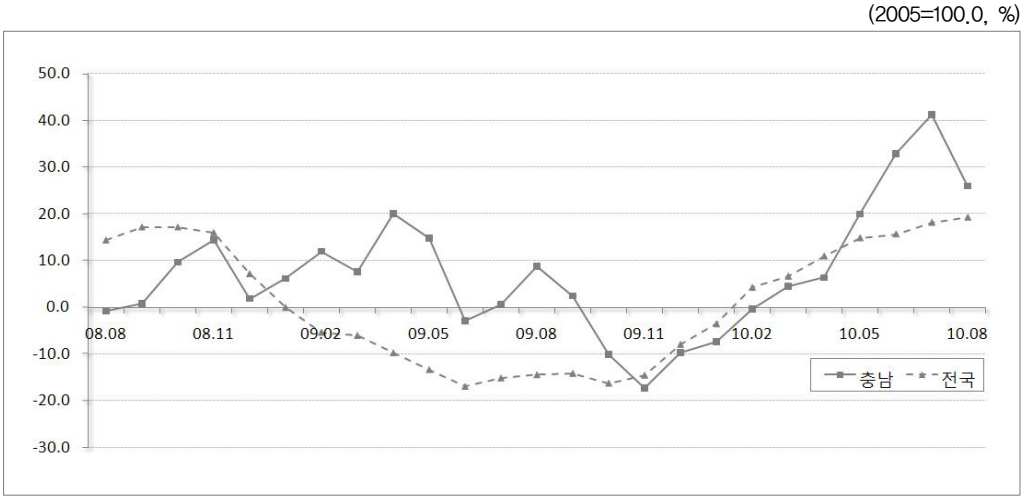
- 영상음향및통신(+100.0) : TV용LCD, 모니터용LCD, 노트북용LCD, 포토마스크 등
- 자동차(+22.9) : 대형승용차, 중형승용차, 동력전달장치, 차체부품 등
- 전기장비(+21.2) : 소형2차전지셀, 소형전동기, 전기밥솥, 비데 등
- 제1차금속(+13.8) : 열연대강, 칼라강판, 아연도강판, 스테인리스강판 등

[감소업종]

- 화학제품(-6.0) : 폴리프로필렌, 파라크실렌, 복합비료, 테레프탈산 등
- 섬유제품(-9.1) : 자동차용커버, 면사, 타포린, 재생섬유직물 등

전국 및 충남 재고지수 전년동월비

(2005=100.0, %)



3. 소비 및 물가

[소비]

○ 2010. 8월 충남의 대형소매점 경상판매액은 88,123백만원으로 전월대비 4.8% 감소, 전년동월대비 6.3% 증가, 지수는 133.0 기록

○ 내구재, 준내구재의 감소 및 비내구재의 증가로 인해 대형마트 경상판매액은 전월대비 3.4% 감소, 전년동월대비 10.2% 증가

[전월비 주요 상품군별 증감(%)]

- 내구재(-8.0) : 가전제품(-13.7), 기타(-3.6)
- 준내구재(-13.0) : 신발(-24.6), 운동, 오락용품(-19.6), 의복(-16.1)
- 비내구재(+1.2) : 음식료품(+2.8), 기타(-7.1)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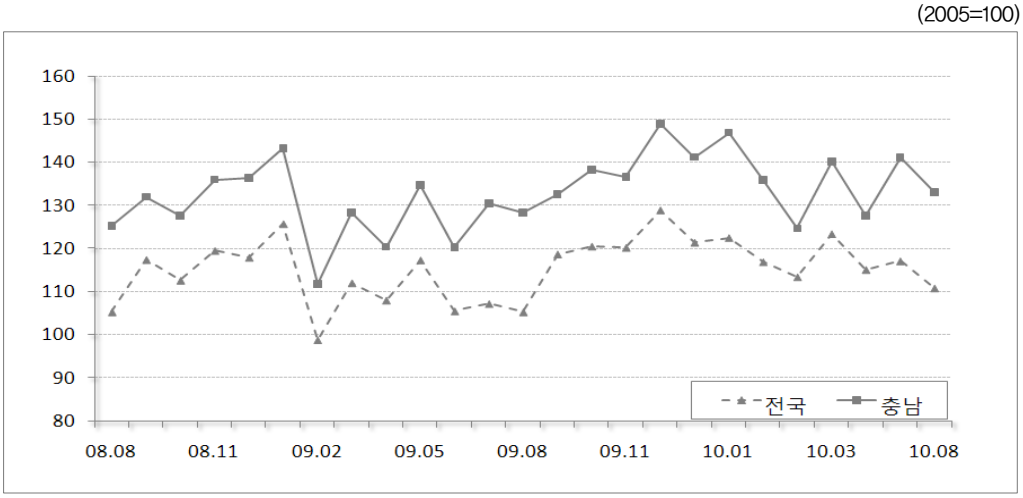
(경상금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8월	5월	6월p	7월p	8월p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 국	4,075,847	4,882,983	4,530,775	4,627,499	4,410,646	8.2	-4.7
충 남	147,050	160,132	148,085	165,782	158,846	8.0	-4.2
대형소매점	82,884	92,366	83,516	92,599	88,123	6.3	-4.8
대형마트	64,166	67,764	64,569	73,183	70,723	10.2	-3.4

자료 : 대형소매점 판매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대형소매점 판매 지수

(2005=100)



[물가]

○ 2010. 9월 충남의 소비자물가지수는 118.2로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3.6%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120.4로 전월대비 1.3% 상승, 전년동월대비 4.0%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150.7로 전월대비 18.4% 상승, 전년동월대비 47.9% 상승

- 신선어개, 신선채소는 전년동월대비 각각 19.3%, 93.2% 상승, 신선과실은 21.3% 상승

소비자 및 생활물가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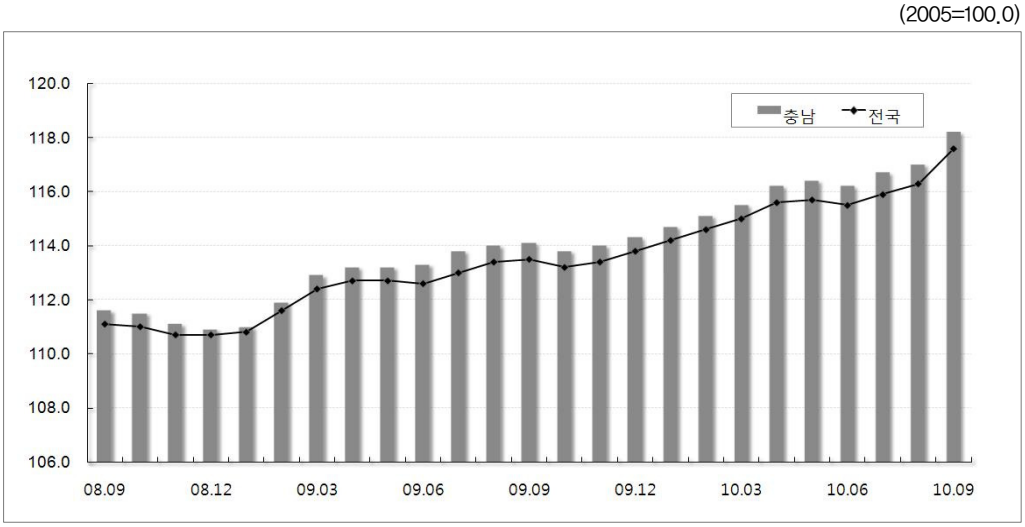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9월	6월	7월	8월	9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소비자물가지수		113.5	115.5	115.9	116.3	117.6	3.6	1.1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114.1	116.2	116.7	117.0	118.2	3.6	1.0
상품 성질별	상 품	114.5	117.7	118.5	118.9	121.5	6.1	2.2
	서비스	113.8	115.2	115.4	115.6	115.8	1.8	0.2
생활물가지수		115.8	118.0	118.5	118.8	120.4	4.0	1.3
신선식품지수		101.9	115.4	121.1	127.3	150.7	47.9	18.4

자료 : 소비자물가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전국 및 충남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0)



4. 수출입

[수출입]

○ 2010. 8월 충남의 수출은 대중국수출품과 자동차를 중심으로 수출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전월에 이어 증가세 지속

- 전년동월대비 38.6% 증가(49억33백만달러)하여 증가세 지속(+41.2%→+38.6%)
- 평판디스플레이(+18.5%), 반도체(+59.9%), 자동차(+325.5%) 등이 증가세 지속에 기인

○ 2010. 8월 충남의 수입은 원유,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등의 증가세 전환으로 전월대비, 전년동월대비 증가

- 원유(+8.2%) 수입 증가 및 석탄(+13.3%), 석유제품(+13.0%) 등의 증가로 인해 전월대비 소폭 증가(-12.7%→+0.3%)

전국 및 충남의 수출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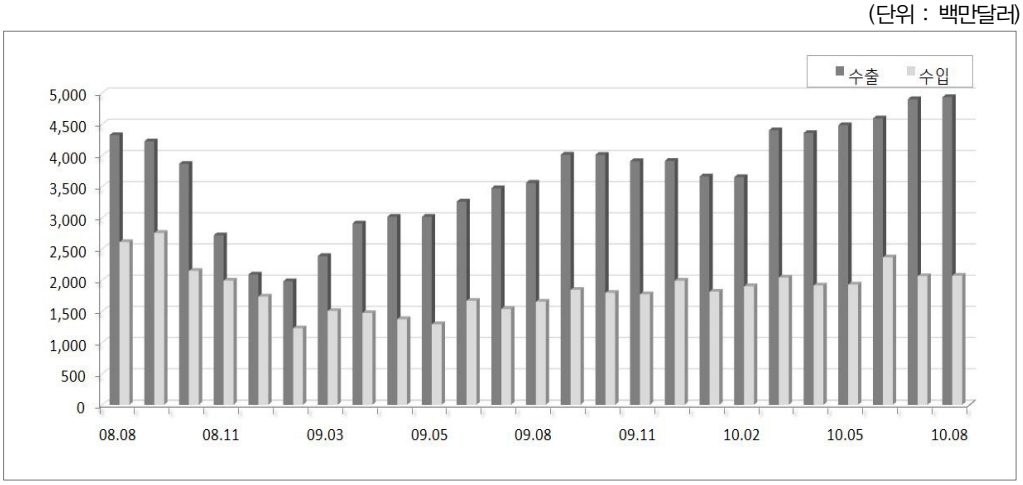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전국	수 출	28,950	38,895	42,070	40,682	36,965	27.7	-9.1
	수 입	27,408	34,914	35,432	35,439	35,247	28.6	-0.5
	무역수지	1,542	3,981	6,638	5,243	1,718	-	-
충남	수 출	3,560	4,483	4,592	4,898	4,933	38.6	0.7
	수 입	1,653	1,928	2,363	2,064	2,071	25.3	0.3
	무역수지	1,907	2,555	2,229	2,834	2,862	-	-

자료 : 무역통계, 한국무역협회.

충남의 수출입 추이

(단위 : 백만달러)



8월 품목별 수출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구분	품목명	수출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출총액	4,933	38.6	0.6	100.0
1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1,617	18.5	1.3	32.8
2	반도체	1,552	59.9	4.3	31.5
3	석유제품	278	22.6	2.6	5.6
4	합성수지	162	24.8	2.5	3.3
5	자동차	147	325.5	-7.0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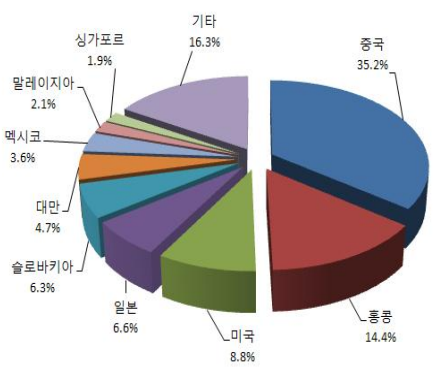
8월 품목별 수입액(금액기준)

(단위 : 백만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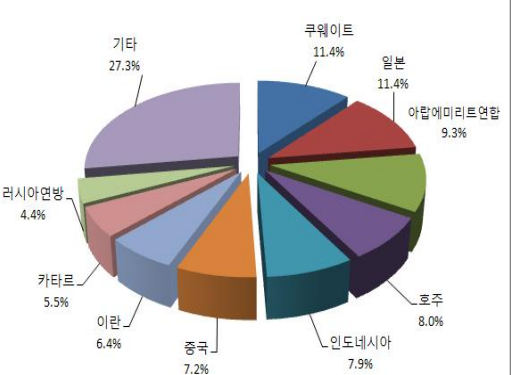
구분	품목명	수입액	증 감 율		수출비중
			전년동월비	전 월 비	
	수입총액	2,071	25.2	0.3	100.0
1	원유	731	8.2	17.1	35.3
2	석탄	315	13.3	-2.5	15.2
3	석유제품	224	13.0	-25.1	10.8
4	강반제품및기타철강제품	64	9750.4	0.0	3.1
5	원동기및펌프	61	322.2	-3.2	2.9

8월 국별 수출입 현황

[주요수출국 구성비]



[주요수입국 구성비]



5. 고용

[경제활동인구]

○ 2010. 8월 충남의 15세이상인구(+1.5%)는 전년동월대비 증가, 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월대비 1.6% 증가

- 15세이상 인구는 1,616천명으로 전년동월(1,592천명)보다 24천명(+1.5%) 증가
- 경제활동인구는 1,032천명으로 전년동월(1,016천명)보다 16천명(+1.6%) 증가

○ 경제활동참가율은 63.8%로 전년동월과 동일

* 경제활동참가율(%) = (경제활동인구 ÷ 15세이상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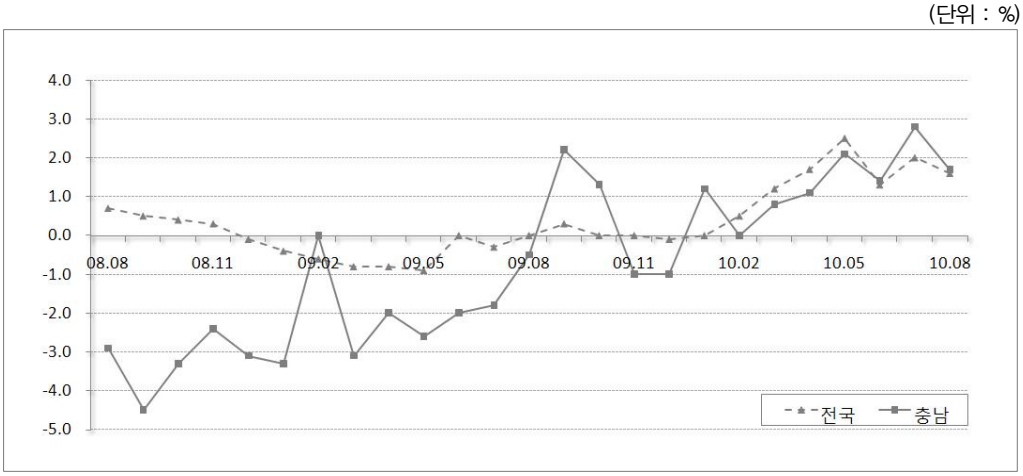
[취업자]

○ 2010. 8월 충남의 취업자수는 1,00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7% 증가, 전월대비 0.1% 감소

○ 사업·개인·공공서비스(+5.5%), 전기·운수·통신·금융업(+5.5%) 부문은 각각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반면, 사회간접자본 및 기타서비스업 중 건설업(-10.3%) 및 도소매·음식·숙박업(-10.2%) 부문은 감소

충남 및 전국의 월별 취업자 전년동월비

(단위 : %)



자료 : 충청지역 고용동향, 충청지방통계청.

[실업률]

○ 2010. 8월 충남의 실업자는 25천명으로 전년동월(26천명)대비 1천명(-4.2%) 감소, 실업률은 전년동월(2.6%)대비 0.2%p 하락한 2.4%

6. 금융

[수신부문]

○ 2010. 8월 충남의 예금은행 수신은 정기예금 등 거치·적립식예금이 큰 폭으로 늘어나 증가로 전환, 자산운용회사, 신탁회사, 상호금융 등에 대한 자금 인출이 늘어나면서 비은행기관 여신 감소폭 확대

○ 예금은행 수신 증가로 전환, 비은행기관 감소폭 확대

- 예금은행 : 7월 -530억원, 8월 +116억원
- 비은행기관 : 7월 -167억원, 8월 -873억원

[여신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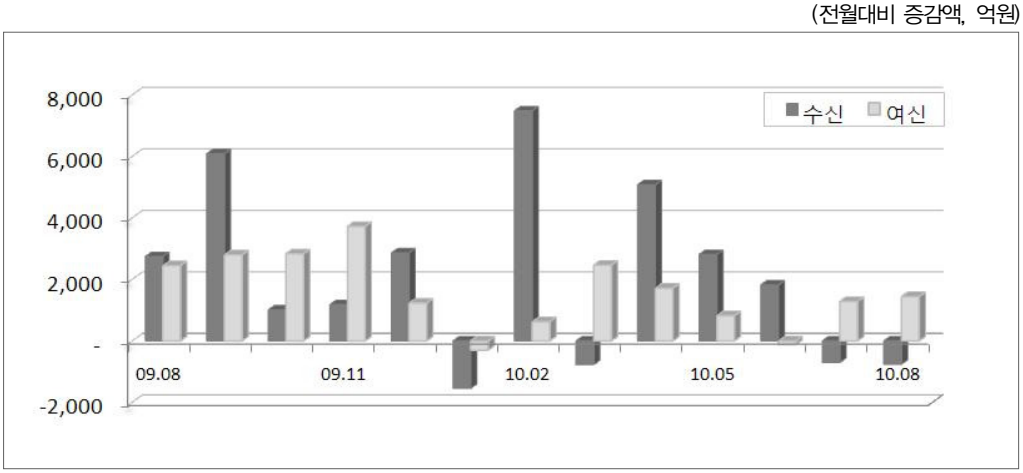
○ 2010. 8월 충남의 예금은행 여신은 가계대출의 감소, 공공 및 기타대출의 지자체 대출 상환 등으로 감소로 전환,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의 소액신용대출 확대 및 상호금융의 대출호조 등으로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폭 확대

○ 예금은행 여신 감소 전환, 비은행기관 여신 증가

- 예금은행 : 7월 +834억원, 8월 -127억원
- 비은행기관 : 7월 +449억원, 8월 +1,569억원

금융기관 여수신 추이

(전월대비 증감액, 억원)



자료 : 대전·충남지역 경제동향, 한국은행 대전충남본부.

[부도율]

○ 2010. 8월 충남의 부도율은 0.22%이며 전월대비 0.08%p 하락

- 지역별로는 천안 0.25%, 홍성 0.65%, 논산 0.00%, 공주 0.00%, 서산 0.05% 기록

7. 건설 및 부동산

[건축허가 및 착공]

○ 2010. 8월 충남의 건축허가 면적은 487천m^2로 전월대비 16.1%, 전년동월대비 42.4% 각각 감소

- 8월 허가면적 구성비 : 공업용(26.8%), 주거용(21.3%), 상업용(19.2%) 등

건축허가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허가	845,405	591,696	866,573	580,512	487,208	-42.4	-16.1
주거용	506,342	107,737	111,125	132,050	103,542	-79.6	-21.6
상업용	92,042	100,481	150,977	145,247	93,581	1.7	-35.6
농수산용	28,368	78,177	59,937	78,233	36,727	29.5	-53.1
공업용	116,256	196,653	458,628	138,889	130,556	12.3	-6.0
기 타	102,397	108,648	85,906	86,093	122,802	19.9	42.6

자료 : 건축허가 현황, 국토해양부.

○ 2010. 8월 충남의 건축착공면적은 432천m^2로 전월대비 6.3%, 전년동월대비 5.8% 각각 감소

- 8월 착공면적 구성비 : 공업용(29.4%), 상업용(19.4%), 주거용(16.8%) 등

건축착공면적

(단위 : m^2)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8월	5월	6월	7월	8월	전년동월비	전월비
건축착공	459,092	609,255	751,798	461,472	432,427	-5.8	-6.3
주거용	175002	97,332	108,025	74,656	72,635	-58.5	-2.7
상업용	59378	68,621	97,558	116,024	84053	41.6	-27.6
농수산용	30313	75,699	65,146	58,149	43427	43.3	-25.3
공업용	70048	251,258	439,021	126,333	127264	81.7	0.7
기 타	124,351	116,345	42,048	86,310	105048	-15.5	21.7

자료 : 건축착공 현황, 국토해양부.

[주택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

○ 2010. 9월 충남의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보합(0.0%)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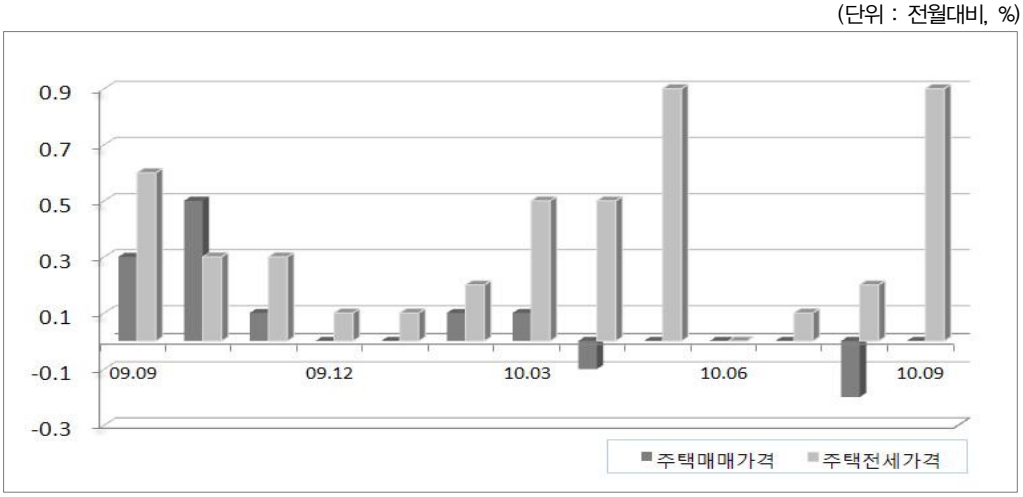
- 계절적인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개선되기는 하였지만 지난해부터 지속된 금융규제 강화로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향후 주택가격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면서 보합으로 나타남
- 논산(+0.2%), 아산(+0.1%)이 주요 상승지역이며, 주요 하락지역은 공주(-0.1%), 천안 동남구(-0.1%)로 나타났음

○ 2010. 9월 충남의 주택전세가격은 3개월 연속 증가세 지속, 전월대비 증가(+0.9%)

- 가을 이사철 수요 및 신혼부부 증가에 따른 수급불균형이 전세가격 증가에 기인
- 전세가격 주요 상승지역은 논산(+4.6%), 천안 서북구(+0.3%) 지역이며, 논산은 기존 아파트 전세 물량이 부족한 가운데 논산 제2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관련 근로자 수요 유입으로 물량이 부족해져 단독·연립주택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함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증감율

(단위 : 전월대비, %)



자료 : 월별 주택 가격동향, 국민은행.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일지

충남경제일지

['10.9.15~9.17] 2010 충청권벤처프라자, 7건 683만$ 수출계약

○ 충남도, 대전시, 충북도가 공동주최, (재)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서울 삼성동 코엑스 C4홀에서 IT·BT·ET 등 5개 분야 69개 업체 참여 14,000여명 참관

○ 179건(약 170,592천달러)의 상담 성과와 7건 약 6,832천 달러 계약 체결

['10.9.18] 충남도, 레닌그라드주와 교류협정 10주년 기념행사

○ 충청남도 구본충 행정부지사와 러시아연방 레닌그라드주 알렉산드르 쿠즈네초프 부지사는 롯데부여리조트에서 기념패를 교환하고, 공동선언문 채택

※ 과학기술 및 의료·보건 분야 정보교환, 전문가 교류 및 공동 연구, 교환공연, 체육 종목별 지도자 등 문화·체육 교류, 교역증진, 기업진출 및 합작투자, 경제인 교류, 교수·학생 교환연수 등

['10.9.28~9.30] 농수산식품 수출상담회, 1,115만$ 수출계약

○ 예산 리솜 스파캐슬에서 해외바이어 30여 명을 초청, 1:1 상담회와 시음·시식코너 운영

○ 1,115만 달러의 계약실적과 1,635만 달러의 상담실적 성과

['10.9.30] 충청권 광역의회의원 초청 지역발전 정책설명회

○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위원장 최상철) 주관으로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충청권 광역의원 106명을 대상으로 지역발전 정책방향,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의 운영, 선도산업 육성, 인재양성 사업, 2020 장기발전구상 및 추진 전략 등 설명과 토론

['10.9.30] 제9차 지역일자리 창출 전략회의

○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중앙청사별관 국제회의장에서 행안부 장관 및 행정부시장·부지사, 시도 지역발전연구원장, 민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일자리 창출 100인 포럼 출범 및 대국민토론회 진행

['10.9.30] 노사 한마음 다짐대회

○ 한국노총 충남지역본부 주관으로 공주 갑사에서 도내 근로자 및 사용자 등 500여명이 참석하여 근로자 및 사용자간 화합다짐대회 개최

['10.9.30~10.1] 3분기 지역고용정책협의회 개최

○ 충남도 주관(고용노동부 주최)으로 롯데부여리조트에서 한국능률협회, 한국지역경제학회, 한국지역고용학회 등 유관기관 및 중앙·16개 시도 고용정책업무 담당과장 등 70여명이 참석하여 청년고용 종합대책 및 지역 일자리공시제 추진 협의

['10.10.4] 충남 우수 공공구매제품 설명회

○ 구매·계약·사업발주 담당자를 대상으로 도내 28개 업체 제품의 우수성 홍보와 구매상담 권역별 설명회 개최(4일 보령문화예술회관, 7일 홍성문화원, 12일 천안시청)

※ 경신가동보㈜, ㈜자연과 환경, 한일에코산업㈜, 비엔케이㈜, ㈜폴리텍, ㈜고려비엔피, ㈜에너지코리아, 지앤씨테크㈜, ㈜유비정보기술, 알파특수콘크리트㈜, SW도로안전, ㈜동양하우징, 광희엔지니어링㈜, ㈜한백시스템, ㈜오에치케이, ㈜제일화인데크, ㈜센텍, 신동아스콘㈜, 에프씨반도체㈜, 대성아스콘㈜, 삼이씨앤지, ㈜파스텍, 한림로덱스㈜, ㈜시그너스시스템, ㈜홍디자인, 서일공영㈜, ㈜태성콘크리트

['10.10.4~10.7] 충남-대전 합동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 충청남도, 대전광역시, 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부 공동으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일본·중국·인도·태국·UAE 등 9개국 44명의 바이어 초청

○ 농수산식품, 기계, 화장품, 의료, 생활용품 등 130여개 중소기업체와 상담결과, 5,177만$ 수출, 360만$ 계약체결, 계약추진액 1,269만$ 실적 달성

['10.10.5] 충남형 사회적 기업 사업설명회

○ 충남도 주관으로 충남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충남형 사회적기업 공모 참여 단체 및 개인 등 50여 명을 대상으로 지정요건, 매뉴얼, 제출서류 작성방법 등 설명

['10.10.5] 2010년도 제5차 고용포럼

○ (사)충남벤처협회 주관으로 순천향대 대회의실에서 고용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하여 지역고용사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충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등 협의

['10.10.6] 향토자원 조사자 교육

○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 주관으로 충남교통연수원 소강당에서 16개 시군 담당자 및 관리·조사요원 등 180여명을 대상으로 항목별 조사요령, 사례발표 등 실시

['10.10.11] 제9차 충남경제연구회 개최

○ 충남도 주최 지식경제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장(문신학) 및 한국전자부품연구원 차세대 전지연구센터장(김영준) 등 전문가 15명이 참석하여 2차전지 경쟁력 강화 방안 및 충남도의 역할에 대해 토론

['10.10.12] 2010 서산시 취업박람회 개최

○ 충남일자리종합센터 주관(서산시 주최)으로 서산시 종합운동장에서 46개 자동차 부품 관련 중견기업체가 참여하여 현장면접 및 채용, 구인정보 제공 등 실시

['10.10.13~10.14] 일자리 창출 활성화를 위한 담당공무원 워크숍

○ 충남도 주관으로 한화콘도(보령)에서 시군 담당과장, 담당, 지역공동체, 사회적기업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

○ 민선5기 경제정책 방향 및 고용정책기본계획 설명, '10년 하반기 및 '11년 일자리 창출 추진 계획, (충남형)사회적기업 발굴 및 육성 방안, 일자리창출 추진 우수 시군 사례발표 등 일자리창출 활성화 방안 토론

['10.10.13] 전의2 일반산업단지 준공

○ 연기 전의면 관정리(857천㎡)에 5개년('06~'11)에 걸쳐 1,076억원을 투자하여 비금속 광물, 전자부품, 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등의 업종을 유치하는 산업단지 준공

['10.10.14] 농공단지 회생프로그램 추진 영상회의

○ 충남테크노파크, 충남발전연구원, 道·시군 관계공무원 등 30여명이 참석하여 충남도 및 16개 시군 영상회의실에서

○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사업 추진(30개 과제), 경영·판로·인력 지원·농공단지 협의회 운영 강화, 노후시설 개선 및 고도화, 제도 및 규제 개선 등

['10.10.14]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동향, 보급사례 및 발전방안 세미나

○ 한국신재생에너지협회 주관으로 서울 COEX에서 전국 지자체 신재생에너지 담당 공무원,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하여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지열, 태양열, 바이오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사례 공유 및 현안과 발전방안 모색

['10.10.15] 제8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 오·폐수처리장 폐지, 지원시설 증가 등 예산 증곡농공단지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관련 위원회 위원 19명 서면 심의

['10.10.15~10.16] 2010 충남 첨단 과학축전 개최

○ 충남도 주최(단국대·천안시 주관)로 단국대학교(천안 캠퍼스)에서 초·중·고 학생 및 일반인 등 3만 여명이 참석하여 전시관, 과학체험, 로봇페스티벌, 체험수기 공모전 등 개최

['10.10.21] 석유화학 신르네상스 포럼

○ 충청남도 후원 한국화학연구원 주관으로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정유석유화학관련 전문가, 교수, 업체대표 등 70여 명이 참석하여 대산석유화학단지 및 주변연계 국가경쟁력 확보방안과 녹색 석유화학단지 모델 확립 등 논의

['10.10.21] 경제통상분과 도정평가단 현장평가

○ 충남도 도정평가단 중 경제통상분과위원 38명이 참석, 송산 일반산업단지(당진), 당진화력, 예비사회적 기업인 가건모 등 사업현장을 방문하여 애로·건의사항 수렴

['10.10.21] 2010 건전소비생활 다짐대회

○ 전국주부교실 충청남도지부 주관으로 충남공무원연수원에서 소비자·여성·사업자 단체 등 관계자 450여명이 참석하여 물가안정 및 소비자 권익향상을 위한 결의 및 사례 발표 진행

['10.11.2] 2010 산학연관 합동세미나 개최

○ 충청남도 후원 충남테크노파크 주관으로 충남공무원교육원에서 학계, 기업체, 연구소, 도 및 시군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 중소기업 R&D 역량강화방안에 대한 대토론과 민선5기 경제산업정책 관련 분임별 토의를 진행등 진행(왕궁촌 순시, 기념식수, '오악사' 연주, '미지' 공연, '이영희' 패션쇼)

○ 9. 18(토) 개장을 시작으로 10. 17(일)까지 공주·부여 일원에서 학술·공연·체험행사 등 진행

2010 지역기반육성기술개발사업 신규지원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창업한 지 1년 이상인 기업
- 충남테크노파크,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역특화센터 등에서 산학연 컨소시엄

○ 지원분야
- 전자정보기기, 자동차·부품, 첨단문화, 농·축산 바이오 등 시제품 개발과제

○ 지원내용 : 과제당 1억원 이내(사업비는 중소기업 주관시 총사업비의 3/4까지)

○ 지원기간 : 1년

○ 신청서 접수 : 2010. 10. 29(금) 18:00, 충남테크노파크 지역산업평가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충남테크노파크로 문의(041-589-0131)

2010 충남형 사회적 기업 공모

○ 신청대상
-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상업상 회사, 비영리 단체, 법인 내 사업단
- 목　　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20% 이상으로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 제공

○ 신　　청 : 2010. 9. 27(월)~10. 15(금), 시군 담당부서(지역경제과 또는 주민생활지원과)

○ 제출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서류, 사회적 목적 실현 증빙서류, 정관 등

○ 지원사항
- 일반근로자 인건비 : 10명 이내, 1인당 월 63만원
- 전문인력 인건비 : 1명, 월 150만원
- 기업설립 및 경영컨설팅 무료 지원
- 참여인력에 대한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분 지원 등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경제정책과로 문의(042-251-2679)

2010 충청남도 무역의 날 수출탑 시상 공고

○ 신청대상 : '09년 연말 기준 수출실적 50만$ 이상~100만$ 미만 업체

○ 접수기간 : 2010. 9. 28(화)~10. 28(목)

○ 접 수 처 : 도 및 시군 수출 담당부서,

○ 제　　출 : 우편 또는 이메일로 신청서, 증빙서, 본사 사업자등록증, 수출신고필증

※ 기타 자세한 사항은 道 홈페이지 및 통상지원과(042-251-2455),
(사)한국무역협회 대전충남지역본부로 문의(042-864-4621)

주요 민간 경제연구소 경제리포트

○ 삼성경제연구소(CEO 인포메이션) : http://www.seri.org
- 서울 G20 정상회의와 기대효과
- 부동산 시장, 대세 하락 가능성 점검
- 고조되는 환율갈등의 배경과 전망

○ 현대경제연구소(VIP 리포트) : http://hri.co.kr
- 초 엔고(円高) 시대, 일본의 대응과 시사점
- 해외자원 수입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
- 교육시장의 세계화와 한국의 대응

○ LG경제연구소(ERI 리포트) : http://www.lgeri.com
- 북한경제의 중국 의존 깊어지고 있다
- 2011년 국내외 경제전망(수출과 투자 둔화, 성장률 4%로 하락)
- 한국기업의 현금보유 수준 평가(규모가 작은 기업이 현금보유 성향 높다)
- 글로벌 메가시티의 미래 지형도

○ 한국산업연구원 : http://www.kiet.re.kr
- 독일 통일 20년의 경제적 교훈과 시사점
- 국제행사 개최의 경제적 효과
-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역량별 혁신특성 분석가 정책적 시사점
- 전자제품의 부품·소재 투입구조 변화와 시사점
- 우리나라 대일·대중 무역구조 분석과 시사점

○ 한국금융연구원 : http://www.kif.re.kr
- 외국인 국내채권 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 보험사의 녹색경영 현황 및 발전과제
- 은행업 위험변화가 자금 중개기능에 미치는 영향

※ 상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Chungnam Economic Trends

경제지표

1. 국내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 위	2005	2006	2007	2008	2009
국내총생산 (GDP)[1]	억달러	8,447	9,511	10,493	9,287	–
GDP 성장률[2]	%	16.9	12.6	10.3	△11.5	–
국민총소득 (GNI)[1]	억달러	8,439	9,525	10,512	9,347	–
GNI 성장률[2]	%	16.5	12.9	10.4	△11.1	–
1인당 GNI[1]	달러	17,531	19,722	21,695	19,231	–
경제성장률	%	4.0	5.2	5.1	2.2	–
산업구조						
농림어업	%	3.3	3.2	2.9	2.5	–
광공업		27.8	27.4	27.5	28.3	–
전기·가스·수도사업		2.3	2.3	2.2	1.8	–
건설업		7.6	7.5	7.4	7.0	–
기타 서비스업		59.0	59.7	60.0	60.3	–
제조업 평균가동률	%	79.7	80	80.1	77.2	
취업자	천명	22,856	23,151	23,433	23,577	23,506
농림어업	%	7.9	7.7	7.4	7.2	7.0
광공업		18.1	17.6	17.2	16.9	16.4
건설업		7.9	7.9	7.9	7.7	7.3
기타 서비스업		65.7	66.5	67.2	67.9	69.3
실 업 률 (ILO기준)	%	3.7	3.5	3.2	3.2	3.6
경상수지		14,981	5,385	5,876	△6,406	40,418
상품수지 (FOB)	백만 달러	32,683	27,905	28,168	5,994	54,381
서비스수지		△13,658	△18,961	△19,768	△16,734	△16,973
소득수지		△1,563	534	1,003	5,107	3,741
경상이전수지		△2,482	△4,093	△3,527	△773	△731
수출액	억달러	2,844	3,254	3,715	4,220	3,635
수입액		2,612	3,094	3,568	4,352	3,231
총저축률	%	32.1	30.8	30.8	30.7	–
민 간 비 중	%	30.5	32.5	34.4	30.6	–
정 부 비 중		69.2	67.5	65.6	69.4	–
총자본형성	십억원	247,511	256,866	269,188	286,918	–
국 내 비 중	%	19.3	18.3	16.7	16.5	–
국 외 비 중		80.7	81.7	83.3	83.5	–
최종소비지출	%	65.9	67.7	69.0	69.1	–
민 간 비 중	%	20.2	20.5	21.0	21.3	–
정 부 비 중		79.8	79.5	79.0	78.7	–
생산자물가상승률	%	2.1	0.9	1.4	8.6	–0.2
소비자물가상승률	%	2.8	2.2	2.5	4.7	2.8

주 : 1) 당해년 경상가격 2) 2000년 기준년가격.

일 경제지표 (2010.10.1기준)

금리

구 분	'08말	'09말	'10.8말	9.29	9.30	10.1	전일비	'09말비
콜금리(1일),%	3.02	2.01	2.28	2.26	2.27	2.27	0.00	0.26
CD(91일),%	3.93	2.86	2.66	2.66	2.66	2.66	0.00	△0.20
국고채(3년),%	3.41	4.41	3.55	3.34	3.32	3.26	△0.06	△1.15
국고채(5년),%	3.77	4.92	4.00	3.74	3.71	3.57	△0.14	△1.35
회사채(3년, AA-),%	7.72	5.53	4.53	4.27	4.26	4.20	△0.06	△1.33

주가

구 분	'08말	'09말	'10.8말	9.29	9.30	10.1	전일비	'09말비
KOSPI지수	1,124.47	1,682.77	1,742.75	1,866.45	1,872.81	1,876.73	0.21%	11.53%
·거래대금(억원,일평균)	32,692	42,856	50,791	73,382	62,980	62,204	6,225	26,348
KOSDAQ지수	332.05	513.57	464.71	489.61	492.75	495.06	0.47%	△3.60%
외국인 순매수(억원,기간중)	△380,648	301,051	△6,227	30,285	45,221	4,687	△40,533	

※ 기간중 : '08말('08.1.1~12.31), '09말('09.1.1~12.31), '10.8말('10.8.1~8.31), 10.1('10.9.1~9.30).

환율

구 분	'08말	'09말	'10.8말	9.29	9.30	10.1	전일비	'09말비
₩/U$(종가)	1,259.50	1,164.50	1,198.10	1,142.00	1,140.20	1,130.40	+0.87	+3.02
선물환(NDF,1개월물)	1,257.60	1,165.90	1,200.80	1,143.40	1,141.70	1,131.70	+0.88	+3.02
₩/￥100	1,396.81	1,264.52	1,423.77	1,364.72	1,368.13	1,354.42	+1.01	△6.64
￥/U$	90.17	92.09	84.15	83.68	83.34	83.46	△0.14	+10.34
U$/EUR	1.4093	1.4325	1.2644	1.3575	1.3572	1.3637	+0.48	+5.05
CNY/U$	6.8506	6.8279	6.8080	6.6862	6.6909	6.6895	+0.02	+2.07

※ '09년 평균 환율 : (₩/U$) 1,276.5원, (₩/￥100) 1,363.5원.
※ '10년 평균 환율('10.1.1~현재) : (₩/U$) 1,164.3원, (₩/￥100) 1,302.8원.
※ 전일비(%) 및 '08말비(%)에서 절상·절하는 대미통화 기준(+는 절상, △는 절하).

국제금리 · 주가 · 가산금리

구 분	'08말	'09말	'10.8말	9.29	9.30	10.1	전일비	'09말비
LIBOR(3월, $)	1.43	0.25	0.30	0.29	0.29	0.29	0.00	0.04
T/NOTE(10년물)	2.21	3.83	2.47	2.50	2.52	2.52	0.01	△1.32
DOW	8,776	10,428	10,015	10,835	10,788	10,830	△0.44%	3.45%
NIKKEI	8,860	10,546	8,824	9,559	9,369	9,404	0.37%	△10.83%
SANGHAI COMP	1,821	3,277	2,639	2,611	2,656	N.A.	1.72%	△18.96%
외평채가산금리 (bp,2013년물)	405	59	169	150	150	150	0	91
CDS (bp,5Y)	316	86	123	102	101	99	△1	15
CRS (%,1Y)	1.10	2.25	2.18	1.83	1.73	1.75	0.02	△0.50

※ 10월 1일 중국은 'National day'로 휴장.

유가 · 곡물 · 원자재 · 반도체가격

구 분	'08말	'09말	'10.8말	9.29	9.30	10.1	전일비	'09말비
DUBAI ($/bbl)	36.45	78.04	72.76	75.79	77.24	79.70	1.45	△0.80
WTI 2월 선물 ($/bbl)	50.57	79.36	71.92	77.86	79.97	81.58	2.11	0.61
원당(센트/파운드)	11.8	26.95	19.32	24.90	23.48	23.36	△5.70%	△12.88%
밀 (센트/부셀)	611	542	686	683	674	655	△1.32%	24.47%
대두 (센트/부셀)	972	1,049	1,010	1,099	1,107	1,057	0.71%	5.56%
옥수수 (센트/부셀)	407	415	439	505	496	466	△1.83%	19.60%
동 ($/톤)	3,050	7,377	7,361	8,030	8,055	8,132	0.31%	9.19%
알루미늄 ($/톤)	1,520	2,242	2,050	2,329	2,348	2,374	0.82%	4.73%

※ '09년 평균 유가 : (Dubai) 61.92$, (WTI) 62.09$
※ '10년 평균 유가('10.1.1~현재) : (Dubai) 76.03$, (WTI) 77.68$.

2. 충남 주요 경제지표

구 분	단위	2005	2006	2007	2008	2009
지역내총생산(GRDP)[1]	억원	474,973	513,613	551,484	582,435	–
전국대비 구성비[2]	%	5.46	5.85	5.96	6.24	–
GRDP 성장률[2]	%	9.6	12.6	7.6	7.0	–
1인당 GRDP	만원	2,476	2,664	2,848	2,996	–
산업구조	–					–
농림어업	%	8.2	7.6	6.7	6.4	–
광공업		43.4	44.7	45.9	47.1	–
전기가스수도업		4.1	3.9	4.4	3.1	–
건설업		9.6	9.3	8.7	9.2	–
서비스업 및 기타		34.7	34.4	34.5	34.3	–
15세이상인구	천명	1,485	1,517	1,547	1,564	1,588
경제활동인구	천명	956	991	1,021	996	991
취업자	천명	931	967	998	973	961
농림어업	%	23.5	23.6	21.9	19.5	18.8
광공업		15.8	15.5	17.0	17.4	17.1
건설업		6.1	5.8	6.6	5.7	5.8
서비스업 및 기타		54.6	55.1	54.5	57.3	58.3
실업자	천명	25	24	23	24	29
비경제활동인구	천명	529	526	526	568	597
경제활동참가율	%	64.4	65.3	66.0	63.7	62.4
실업률	%	2.6	2.4	2.2	2.4	3.0
고용률	%	62.7	63.8	64.5	62.2	60.5
무역수지	백만달러	15,656	16,599	21,149	13,380	20,299
수출액	백만달러	33,520	38,961	47,823	42,936	39,428
수입액		17,863	22,362	26,674	29,556	19,129
소비자물가상승률	%	3.2	2.6	2.4	4.9	2.7

주 : 1) 당해년가격 2) 2005년 기준년가격.

충남 시군별 지역내총생산

(당해년가격, 억원)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천안시	69,829	77,731	80,888	86,154	101,531	114,378	129,482	136,363
공주시	14,327	15,390	16,926	17,003	18,295	19,107	19,595	21,019
보령시	14,996	15,391	19,340	20,535	20,604	20,610	21,462	23,002
아산시	53,853	55,393	71,873	89,588	101,957	108,960	115,255	125,426
서산시	31,975	32,940	35,540	41,614	49,192	53,512	62,102	66,045
논산시	15,389	14,733	15,979	16,772	17,544	18,944	19,932	20,783
계룡시[1)]	1,764	2,311	2,340	2,726	3,058	3,195	2,947	4,368
금산군	7,422	8,328	9,532	10,409	10,877	10,960	11,802	12,652
연기군	10,999	11,233	12,353	14,000	15,493	15,556	17,117	17,562
부여군	10,189	9,863	10,585	10,517	10,906	11,081	12,027	12,814
서천군	10,427	10,013	10,770	12,459	13,323	12,659	14,049	13,653
청양군	5,353	5,059	5,759	6,033	6,183	6,346	6,412	7,155
홍성군	10,004	10,560	11,331	12,318	13,254	14,284	14,248	14,542
예산군	8,697	9,383	10,480	11,784	12,179	13,441	13,766	13,614
태안군	9,362	10,394	12,140	12,888	12,553	13,840	13,876	14,612
당진군	18,184	19,709	22,797	27,712	30,111	38,100	39,539	47,874
충청남도	292,771	308,432	348,631	392,511	437,060	474,973	513,613	551,484

1) 2003년 이전: 계룡출장소.

3. 충남 부문별 경제지표

경기동행지수 및 순환변동치

(2005=100.0, %)

구 분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	
	지 수 (2005=100)	전 월 비	6개월 전비	12개월 전비	지 수 (Trend=100)	전월차
2007 08	117.6	0.5	7.7	7.4	101.2	0.1
09	118.3	0.6	7.7	7.4	101.4	0.2
10	119.2	0.8	7.9	7.5	101.8	0.4
11	119.8	0.4	7.4	7.4	101.8	0.1
12	120.4	0.5	7.1	7.2	102.0	0.1
2008 01	120.9	0.5	6.7	7.0	102.1	0.1
02	122.0	0.9	7.3	7.3	102.7	0.6
03	122.9	0.7	7.4	7.4	103.0	0.4
04	122.8	-0.1	6.1	6.6	102.6	-0.4
05	122.6	-0.1	4.9	5.7	102.2	-0.4
06	122.5	-0.1	3.8	4.9	101.8	-0.4
07	122.8	0.3	3.6	4.5	101.7	-0.0
08	123.2	0.3	3.4	4.2	101.8	0.0
09	123.1	-0.1	2.6	3.6	101.4	-0.3
10	123.6	0.3	2.6	3.4	101.5	0.1
11	123.3	-0.2	1.6	2.7	101.0	-0.5
12	122.0	-1.1	-0.8	1.2	99.6	-1.4
2009 01	120.0	-1.6	-3.9	-0.8	97.8	-1.9
02	118.5	-1.3	-6.1	-2.4	96.3	-1.5
03	117.4	-1.0	-7.3	-3.7	95.1	-1.2
04	117.0	-0.3	-7.2	-4.3	94.6	-0.5
05	117.4	0.3	-5.9	-4.2	94.6	0.1
06	119.3	1.6	-2.4	-2.7	95.9	1.2
07	120.9	1.4	0.5	-1.3	96.9	1.0
08	122.1	0.9	2.5	-0.2	97.5	0.6
09	123.6	1.2	4.9	1.4	98.4	0.9
10	124.7	0.9	6.6	2.7	98.9	0.6
11	125.7	0.8	8.0	3.9	99.4	0.5
12	126.3	0.5	8.7	4.7	99.6	0.2
2010 01	127.6	1.0	10.2	5.9	100.1	0.7
02	128.8	0.9	11.0	7.0	100.7	0.6
03	129.7	0.7	11.1	7.7	101.1	0.4
04	130.4	0.5	10.4	8.2	101.3	0.1
05	131.2	0.6	9.8	8.7	101.5	0.3
06	132.3	0.8	9.6	9.3	102.0	0.5
07	133.1	0.6	9.1	9.4	102.3	0.3
08	133.7	0.4	8.4	9.1	102.4	0.1

대형소매점 판매액

(단위 : 백만원, 경상판매액, %)

구 분	대형소매점			대형마트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판매액	전년동월(기)비	전월(기)비
2007	788,010	11.2	-	544,694	13.8	-
2008	926,919	17.6	-	660,475	21.3	-
2009	1,013,880	9.4	-	729,608	10.5	-
2009 2/4	242,815	10.3	-0.9	174,293	13.0	-2.2
3/4	252,688	7.4	4.1	189,818	7.8	8.9
4/4	273,383	9.7	8.2	187,292	9.0	-1.3
2010 1/4	276,147	12.7	1.0	201,959	13.3	7.8
2/4	258,380	6.4	-6.4	191,911	10.2	-4.9
2008 08	76,872	19.9	0.3	59,216	18.9	2.6
09	81,758	2.3	6.4	59,216	2.7	0.0
10	78,795	15.0	-3.6	53,995	18.1	-8.8
11	84,477	25.4	7.2	57,367	31.6	6.2
12	86,023	13.1	1.8	60,458	18.6	5.4
2009 01	91,284	27.6	6.1	68,632	34.9	13.5
02	71,135	-5.0	-22.1	50,595	-7.6	-26.3
03	82,575	9.1	16.1	58,978	11.9	16.6
04	77,909	9.0	-5.7	54,588	10.6	-7.4
05	87,492	13.7	12.3	63,137	18.3	15.7
06	77,414	7.8	-11.5	56,568	10.0	-10.4
07	83,908	9.5	8.4	64,356	11.5	13.8
08	82,884	7.8	-1.2	64,166	8.4	-0.3
09	85,896	5.1	3.6	61,296	3.5	-4.5
10	89,093	13.1	3.7	60,227	11.5	-1.7
11	87,789	3.9	-1.5	59,648	4.0	-1.0
12	96,501	12.2	9.9	67,417	11.5	13.0
2010 01	91,525	0.3	-5.2	65,691	-4.3	-2.6
02	95,815	34.7	4.7	72,815	43.9	10.8
03	88,807	7.5	-7.3	63,453	7.6	-12.9
04	82,498	5.9	-7.1	59,658	9.3	-6.0
05	92,366	5.6	12.1	67,764	7.3	13.6
06	83,516	7.9	-9.6	64,569	14.1	-4.7
07	92,599	10.4	10.9	73,183	13.7	13.3
08	88,123	6.3	-4.8	70,723	10.2	-3.4

소비자물가지수

(2005=100, %)

구 분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신선식품지수		지역별 소비자물가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지수	전년 동월 (기)비	천안	전년 동월 (기)비	보령	전년 동월 (기)비	서산	전년 동월 (기)비
2007	105.1	2.4	106.3	3.1	105.5	3.8	105.1	2.4	104.6	2.4	105.3	2.5
2008	110.3	4.9	112.5	5.8	97.9	-7.2	110.4	5.0	109.8	5.0	110.2	4.7
2009	113.3	2.7	114.8	2.0	103.5	5.7	113.5	2.8	112.4	2.4	113.2	2.7
2009 3/4	114.0	2.0	115.6	0.9	102.4	4.6	114.2	2.0	112.9	1.5	113.8	1.7
4/4	114.0	2.5	115.6	2.7	99.1	4.5	114.3	2.7	113.3	2.5	113.8	2.5
2010 1/4	115.1	2.9	117.0	3.5	111.2	6.1	115.2	2.8	114.7	3.1	115.1	2.9
2/4	116.3	2.7	118.3	3.0	120.7	12.3	116.5	2.6	116.0	3.5	115.9	2.5
3/4	117.3	2.9	119.2	3.1	133.0	29.9	117.4	2.8	116.9	3.5	117.1	2.9
2008 09	111.6	5.5	114.0	6.2	98.2	-11.8	111.8	5.6	111.0	5.4	111.6	5.4
10	111.5	5.1	113.6	5.5	94.9	-16.1	111.7	5.2	110.9	5.0	111.4	5.0
11	111.1	4.7	112.6	4.5	92.3	-11.0	111.2	4.8	110.5	4.3	111.0	4.6
12	110.9	4.0	111.7	3.1	97.1	-7.1	111.1	4.3	110.2	3.5	110.7	3.7
2009 01	111.0	3.5	111.8	2.6	102.6	0.5	111.2	3.6	110.3	3.1	111.0	3.7
02	111.9	4.0	112.8	3.2	104.5	0.7	112.0	4.0	111.3	3.7	112.0	4.3
03	112.9	3.9	114.3	3.2	107.3	8.1	113.2	4.1	112.0	3.0	112.7	4.0
04	113.2	3.5	114.9	2.9	111.5	11.5	113.4	3.6	112.3	3.0	113.2	3.8
05	113.2	2.6	114.8	1.5	109.5	10.9	113.5	2.7	112.0	1.9	113.1	2.6
06	113.3	1.9	114.8	0.4	101.5	9.5	113.6	2.0	111.9	1.1	113.1	1.8
07	113.8	1.5	115.4	0.2	102.2	5.7	114.1	1.7	112.6	1.1	113.6	1.2
08	114.0	2.0	115.7	1.0	103.2	4.3	114.2	2.1	113.0	1.7	113.9	1.8
09	114.1	2.2	115.8	1.6	101.9	3.8	114.3	2.2	113.1	1.9	114.0	2.2
10	113.8	2.1	115.4	1.6	100.4	5.8	114.1	2.1	112.9	1.8	113.6	2.0
11	114.0	2.6	115.4	2.5	95.8	3.8	114.2	2.7	113.3	2.5	113.8	2.5
12	114.3	3.1	115.9	3.8	101.0	4.0	114.6	3.2	113.6	3.1	114.0	3.0
2010 01	114.7	3.3	116.4	4.1	105.8	3.1	114.8	3.2	114.2	3.5	114.6	3.2
02	115.1	2.9	117.0	3.7	110.5	5.7	115.2	2.9	114.6	3.0	115.0	2.7
03	115.5	2.3	117.5	2.8	117.4	9.4	115.5	2.0	115.4	3.0	115.6	2.6
04	116.2	2.7	118.5	3.1	124.8	11.9	116.3	2.6	116.0	3.3	115.9	2.4
05	116.4	2.8	118.5	3.2	122.0	11.4	116.7	2.8	116.0	3.6	116.0	2.6
06	116.2	2.6	118.0	2.8	115.4	13.7	116.4	2.5	115.9	3.6	115.8	2.4
07	116.7	2.5	118.5	2.7	121.1	18.5	116.9	2.5	116.1	3.1	116.4	2.5
08	117.0	2.6	118.8	2.7	127.3	23.4	117.1	2.5	116.6	3.2	116.9	2.6
09	118.2	3.6	120.4	4.0	150.7	47.9	118.3	3.5	118.0	4.3	117.9	3.4

수출입

(단위 : 백만달러, %)

구 분	수출			수입			무역수지
	수출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수입액	전년 동월(기)비	전월 (기)비	
2007	47,823	22.8	–	26,674	19.3	–	21,149
2008	42,936	-10.2	–	29,556	10.8	–	13,380
2009	39,428	-8.2	–	19,129	-35.3	–	20,299
2009 2/4	9,287	-15.6	27.7	4,325	-45.6	2.9	4,962
3/4	11,043	-11.4	18.9	5,033	-41.0	16.3	6,011
4/4	11,825	36.4	7.1	5,558	-5.4	10.4	6,267
2010 1/4	11,713	61.2	-0.9	5,756	36.8	3.6	5,957
2/4	13,487	45.2	15.1	6,202	43.4	7.7	7,285
2008 08	4,325	1.8	10.4	2,609	35.3	-17.5	1,716
09	4,224	4.9	-2.3	2,756	41.8	5.6	1,468
10	3,863	-16.8	-8.5	2,148	-14.2	-22.1	1,715
11	2,718	-42.1	-29.6	1,991	-25.5	-7.3	727
12	2,089	-51.0	-23.1	1,736	-34.3	-12.8	353
2009 01	1,980	-44.5	-5.2	1,227	-46.9	-29.3	753
02	2,385	-32.0	20.5	1,506	-35.6	22.7	879
03	2,908	-22.0	21.9	1,471	-42.4	-2.3	1,437
04	3,014	-16.9	3.6	1,373	-48.9	-6.7	1,641
05	3,015	-18.0	0.0	1,291	-49.9	-6.0	1,724
06	3,258	-11.8	8.1	1,668	-37.9	29.2	1,590
07	3,473	-11.3	6.6	1,537	-51.4	-7.9	1,936
08	3,560	-17.7	2.5	1,653	-36.6	7.5	1,907
09	4,010	-5.1	12.6	1,843	-33.1	11.5	2,167
10	4,009	3.8	0.0	1,794	-16.5	-2.7	2,215
11	3,906	43.7	-2.6	1,774	-10.9	-1.1	2,132
12	3,910	87.2	0.1	1,990	14.6	12.2	1,920
2010 01	3,661	84.9	-6.4	1,814	47.8	-8.8	1,847
02	3,650	53.1	-0.3	1,901	26.3	4.8	1,749
03	4,402	51.4	20.6	2,041	38.7	7.4	2,361
04	4,358	44.6	-1.0	1,913	39.3	-6.3	2,445
05	4,483	48.7	2.9	1,928	49.3	0.8	2,555
06	4,592	40.9	2.4	2,363	41.7	22.6	2,229
07	4,898	41.0	6.7	2,064	34.3	-12.7	2,834
08	4,933	38.6	0.7	2,071	25.2	0.3	2,862

고용

(단위 : 천명, %)

구 분	15세이상 인구					실업률	고용률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2007	1,547	1,021	998	23	526	2.2	64.5
2008	1,564	996	973	24	568	2.4	62.2
2009	1,588	991	961	29	597	3.0	60.5
2009 2/4	1,585	1,021	988	33	563	3.3	62.4
3/4	1,592	1,020	991	28	572	2.8	62.3
4/4	1,598	992	965	27	606	2.8	60.4
2010 1/4	1,605	941	906	35	663	3.7	56.5
2/4	1,610	1,028	1,003	24	582	2.4	62.3
2008 08	1,566	1,017	995	22	550	2.1	63.5
09	1,568	1,010	984	26	558	2.6	62.8
10	1,569	1,022	999	23	547	2.3	63.6
11	1,571	1,010	982	28	560	2.8	62.5
12	1,572	951	921	29	622	3.1	58.6
2009 01	1,575	906	880	26	669	2.8	55.9
02	1,577	923	895	27	655	3.0	56.8
03	1,580	959	926	33	621	3.5	58.6
04	1,582	1,008	978	29	575	2.9	61.8
05	1,585	1,020	986	34	565	3.3	62.2
06	1,588	1,037	1,001	36	550	3.5	63.1
07	1,590	1,012	980	32	578	3.2	61.6
08	1,592	1,016	989	26	577	2.6	62.1
09	1,594	1,032	1,005	27	562	2.6	63.1
10	1,596	1,040	1,012	28	556	2.7	63.4
11	1,598	999	972	27	599	2.7	60.8
12	1,600	939	912	27	661	2.9	57.0
2010 01	1,603	932	890	41	672	4.4	55.5
02	1,605	936	896	40	669	4.3	55.8
03	1,606	957	933	24	650	2.5	58.1
04	1,608	1,015	989	25	593	2.5	61.5
05	1,610	1,031	1,006	25	579	2.5	62.5
06	1,612	1,037	1,015	22	575	2.1	63.0
07	1,614	1,037	1,007	30	578	2.9	62.4
08	1,616	1,032	1,006	25	585	2.4	62.3

여수신

(단위 : 억원)

구분	수신			여신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예금은행	비은행기관	합계
2007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138,491	265,039	403,530	220,375	146,671	367,046
2008 08	127,090	193,140	320,230	170,215	117,581	287,796
09	127,030	194,769	321,799	171,290	118,470	289,760
10	126,709	195,285	321,994	173,230	120,038	293,268
11	126,084	196,175	322,259	178,875	121,188	300,063
12	127,588	222,791	350,379	178,085	123,781	301,866
2008 01	125,478	222,654	348,132	179,675	123,894	303,569
02	128,958	223,342	352,300	182,410	125,155	307,565
03	128,952	225,424	354,376	183,854	126,840	310,694
04	128,760	226,609	355,369	186,430	128,308	314,738
05	133,341	228,669	362,010	188,445	129,441	317,886
06	134,776	231,357	366,133	193,627	130,960	324,587
07	132,663	231,903	364,566	195,926	132,472	328,398
08	136,711	232,611	369,322	197,574	134,176	331,750
09	137,127	233,007	370,134	199,832	135,717	335,549
10	137,918	234,644	372,562	201,785	136,745	338,530
11	137,758	237,832	375,590	205,182	137,174	342,356
12	136,456	241,368	377,824	205,933	139,114	345,047
2009 01	135,826	243,786	379,612	207,195	137,630	344,825
02	140,842	245,306	386,148	210,165	138,195	348,360
03	137,463	248,756	386,219	211,587	137,786	349,373
04	137,382	253,042	390,424	212,577	137,261	349,838
05	137,417	253,803	391,220	213,778	137,471	351,249
06	137,192	256,781	393,973	215,701	138,371	354,072
07	134,342	255,354	389,696	215,146	138,865	354,011
08	138,258	254,180	392,438	215,994	140,467	356,461
09	141,543	256,988	398,531	217,251	142,006	359,257
10	140,879	258,660	399,537	219,187	142,904	362,091
11	140,087	260,633	400,720	221,655	144,159	365,814
12	138,491	265,093	403,584	220,375	146,671	367,046
2010 01	136,656	265,391	402,047	221,293	145,453	366,746
02	143,744	265,790	409,534	221,549	145,823	367,372
03	139,853	268,910	408,763	223,456	146,381	369,837
04	143,809	270,034	413,843	224,353	147,201	371,554
05	145,550	271,105	416,655	224,457	147,920	372,377
06	144,072	274,403	418,475	223,655	148,605	372,260
07	143,542	274,235	417,777	224,489	149,054	373,543
08	143,658	273,362	417,020	224,362	150,623	374,985

지역별 부도율

(단위 : %)

구분	충남	천안	홍성	논산	공주	서산
2007	0.29	0.33	0.71	0.25	0.15	0.03
2008	0.64	0.70	0.89	0.19	1.55	0.23
2009	0.32	0.47	0.28	0.27	0.36	0.01
2009 2/4	0.11	0.22	0.06	0.73	0.38	0.00
3/4	0.28	0.48	0.03	0.17	0.29	0.01
4/4	0.35	0.48	0.72	0.06	0.02	0.02
2010 1/4	0.07	0.20	0.27	0.23	0.00	0.05
2/4	0.18	0.20	0.35	0.21	0.04	0.07
2008 08	0.85	0.81	2.29	0.16	0.82	0.27
09	1.10	1.44	1.61	0.24	0.88	0.28
10	1.10	0.99	2.14	0.15	3.74	0.40
11	1.40	2.03	1.22	0.44	2.24	0.10
12	1.17	1.28	1.55	0.28	4.00	0.11
2009 01	0.44	0.46	0.54	0.22	1.80	0.03
02	0.56	1.04	0.18	0.14	0.12	0.00
03	0.32	0.60	0.10	0.04	0.07	0.00
04	0.20	0.25	0.05	0.69	0.42	0.00
05	0.13	0.08	0.08	1.01	0.15	0.00
06	0.24	0.33	0.04	0.49	0.57	0.00
07	0.13	0.16	0.00	0.28	0.62	0.00
08	0.31	0.56	0.08	0.15	0.08	0.01
09	0.39	0.73	0.01	0.09	0.16	0.02
10	0.20	0.33	0.05	0.01	0.05	0.06
11	0.45	0.76	0.46	0.12	0.02	0.00
12	0.40	0.35	1.66	0.05	0.00	0.00
2010 01	0.09	0.12	0.09	0.05	0.00	0.04
02	0.29	0.49	0.11	0.55	0.00	0.00
03	0.10	0.02	0.61	0.06	0.00	0.08
04	0.11	0.04	0.40	0.17	0.01	0.10
05	0.19	0.25	0.26	0.25	0.10	0.05
06	0.24	0.30	0.38	0.20	0.00	0.05
07	0.30	0.39	0.71	0.00	0.36	0.01
08	0.22	0.25	0.65	0.00	0.00	0.05

토지거래, 건축, 미분양주택

(단위 : 천㎡,㎡,%)

구분	토지거래(천㎡)		건축허가(㎡)		건축착공(㎡)		미분양주택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면적	전년동월(기)비	호수	전년동월(기)비
2007	184,304	-21.0	9,944,363	15.0	6,884,740	13.7	119,150	43.6
2008	200,048	8.5	8,533,277	-14.2	5,302,243	-23.0	190,241	59.7
2009	270,249	35.1	7,203,977	-15.6	5,302,140	0.0	189,970	-0.1
2009 2/4	77,357	35.2	1,777,754	-5.3	1,309,835	-1.9	51,231	2.7
3/4	59,507	36.1	1,747,659	-10.3	1,171,624	-2.2	45,132	-7.7
4/4	57,245	32.1	2,051,642	-30.5	1,881,961	43.5	42,081	-10.2
2010 1/4	45,610	-40.1	1,399,393	-14.0	1,435,241	52.9	40,044	-22.3
2/4	49,753	-35.7	2,096,181	18.0	1,903,299	45.3	38,107	-25.6
2008 08	13,922	-2.3	654,360	-5.4	373,723	-16.3	16,069	47.0
09	10,952	10.4	569,516	30.7	308,400	-0.6	16,186	47.6
10	16,759	30.9	742,487	-38.0	742,463	34.2	15,662	38.2
11	12,398	-26.4	814,228	-60.5	312,457	-70.1	15,277	32.8
12	14,181	-19.7	1,394,576	81.3	256,170	-52.6	15,918	24.7
2009 01	13,008	-17.6	654,850	33.7	251,229	-59.8	16,349	16.2
02	29,816	100.5	391,595	-27.3	274,115	-12.3	16,926	13.7
03	33,316	32.6	580,477	-20.3	413,376	-20.6	18,251	16.7
04	28,297	50.2	390,564	-53.1	350,997	-42.4	17,939	10.6
05	23,397	19.2	487,434	6.0	522,731	48.5	17,229	1.9
06	25,663	36.9	899,756	53.8	436,107	16.6	16,063	-4.1
07	22,873	21.3	373,057	-48.4	331,433	-35.7	16,342	-1.8
08	18,848	35.4	845,405	29.2	459,092	22.8	14,595	-9.2
09	17,786	62.4	529,197	-7.1	381,099	23.6	14,195	-12.3
10	15,543	-7.3	400,493	-46.1	479,221	-35.5	13,656	-12.8
11	18,240	47.1	495,128	-39.2	927,808	196.9	14,148	-7.4
12	23,462	65.4	1,156,021	-17.1	474,932	85.4	14,277	-10.3
2010 01	14,782	13.6	399,707	-39.0	323,545	28.8	13,950	-2.3
02	16,923	-43.2	461,775	17.9	409,905	79.5	13,188	-5.5
03	13,905	-58.3	537,911	-7.3	701,791	69.8	12,906	-2.1
04	14,459	-48.9	637,912	63.3	542,246	54.5	12,973	0.5
05	16,252	-30.5	591,696	21.4	609,255	16.6	12,621	-2.7
06	19,042	-25.8	866,573	11.0	751,798	72.4	12,513	-0.9
07	16,773	-26.7	580,512	55.6	461,472	39.2	12,222	-2.3
08	14,787	-21.5	487,208	-42.4	432,427	-5.8	11,593	-5.1

주택매매 및 전세매매지수

(2008.12=100)

구분	주택매매가격						주택전세가격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지수	전년 동월비	전월비	아파트	단독	연립
2006 09	99.0	1.0	0.4	98.1	101.5	96.0	96.3	2.1	0.4	96.7	96.4	96.4
10	99.1	1.1	0.0	98.1	101.5	96.1	96.7	2.4	0.4	96.8	97.0	97.5
11	98.9	0.9	-0.1	98.0	101.3	96.1	96.8	2.5	0.1	96.7	97.4	97.5
12	98.9	0.8	0.0	98.0	101.2	96.1	96.8	2.5	0.0	96.5	97.7	97.5
2008 01	98.7	0.6	-0.2	97.8	101.1	96.1	96.7	2.4	-0.1	96.2	97.8	97.5
02	98.6	0.2	-0.1	97.7	100.9	96.1	96.6	1.9	-0.1	96.0	97.9	97.1
03	98.5	0.2	-0.1	97.5	100.9	96.6	96.7	1.4	0.1	96.2	97.8	97.3
04	98.5	0.0	-0.1	97.4	100.9	96.6	97.0	1.6	0.3	96.4	98.3	97.3
05	98.5	0.0	0.0	97.5	100.9	96.6	97.1	1.7	0.2	96.7	98.3	97.3
06	98.8	0.3	0.3	98.0	100.6	97.5	97.7	2.4	0.6	97.1	99.1	97.4
07	99.1	0.6	0.3	98.5	100.5	97.9	98.0	2.4	0.3	97.3	99.4	98.0
08	99.3	0.7	0.2	98.8	100.3	99.3	98.6	2.8	0.6	97.8	100.0	99.5
09	100.1	1.1	0.8	100.0	100.5	99.7	99.5	3.4	0.9	99.3	100.0	100.0
10	100.3	1.2	0.2	100.2	100.5	99.7	100.0	3.4	0.5	100.0	100.0	100.0
11	100.2	1.3	0.0	100.2	100.3	99.7	100.2	3.5	0.2	100.3	100.0	100.0
12	100.0	1.1	-0.2	100.0	100.0	100.0	100.0	3.3	-0.2	100.0	100.0	100.0
2009 01	99.7	0.9	-0.3	99.6	99.7	100.2	99.6	3.0	-0.4	99.3	100.0	100.2
02	99.5	0.9	-0.2	99.2	99.7	100.2	99.2	2.8	-0.4	98.9	99.7	100.2
03	99.3	0.7	-0.2	99.0	99.5	100.2	99.1	2.5	-0.1	98.5	100.0	100.2
04	99.2	0.8	0.0	98.9	99.6	100.5	98.9	2.0	-0.2	98.6	99.3	100.2
05	99.1	0.6	-0.1	98.8	99.2	100.5	98.9	1.8	0.0	98.6	99.3	100.2
06	99.1	0.2	0.0	98.7	99.3	100.5	98.8	1.1	-0.1	98.5	99.1	100.2
07	99.0	-0.1	0.0	98.6	99.3	100.5	99.0	1.0	0.2	98.6	99.5	100.3
08	99.0	-0.3	0.0	98.8	98.9	100.5	99.1	0.5	0.1	98.7	99.5	100.3
09	99.3	-0.8	0.3	99.1	99.1	101.3	99.7	0.1	0.6	99.0	100.2	100.9
10	99.8	-0.5	0.5	99.4	99.8	101.5	100.0	0.0	0.3	99.4	100.0	103.5
11	99.9	-0.3	0.1	99.7	99.8	101.5	100.2	0.0	0.3	99.7	100.3	103.5
12	100.0	0.0	0.0	99.8	99.8	101.5	100.3	0.3	0.1	99.9	100.3	103.4
2010 01	100.0	0.3	0.0	99.8	99.8	101.5	100.4	0.8	0.1	100.0	100.5	103.4
02	100.1	0.6	0.1	100.0	99.8	101.5	100.6	1.4	0.2	100.4	100.5	103.4
03	100.2	0.9	0.1	100.2	99.8	101.5	101.1	2.0	0.5	100.9	101.0	103.5
04	100.1	0.8	-0.1	100.3	99.2	101.9	101.6	2.8	0.5	101.2	101.9	103.7
05	100.1	1.0	0.0	100.4	99.2	102.2	102.5	3.6	0.9	101.7	103.4	104.4
06	100.1	1.1	0.0	100.4	99.2	102.4	102.5	3.7	0.0	102.2	102.9	104.1
07	100.1	1.1	0.0	100.5	99.2	102.4	102.6	3.6	0.1	102.7	102.9	104.1
08	100.0	1.0	-0.2	100.6	98.7	102.4	102.8	3.7	0.2	103.3	102.9	104.2
09	100.0	0.7	0.0	100.7	98.7	102.6	103.7	4.1	0.9	103.8	104.6	104.9

Chungnam Economic Trends

부록

충남경기종합지수 구성지표 및 해설

이용자를 위하여

1. 자료를 이용하기 전에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시계열자료는 불변 가격 기준으로 환산(실질화), 계절 및 불규칙 변동의 조정 등으로 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3. 충남경기종합지수(동행종합지수)의 최근 2~3개월 수치는 각각 잠정치입니다.

4. 본 책자에 사용되는 기호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P : 정점 (Peak)
   - T : 저점 (Trough)
   - - : 해당사항 없음 (Not Available)

5. 현재 충남지역 경기종합지수는 동행종합지수만 작성되고 있으며,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는 향후 작성할 예정입니다.

6. 본 책자에 수록된 내용이나 경기종합지수에 관한 제안 또는 질의가 있을 경우에는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및 충남발전연구원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담 당 기 관	담 당 자	연락처
충청남도 경제정책과	박 용 진	042-220-2667
충남발전연구원	백 운 성	041-840-1168

1.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월별 추이

구 분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2005=100)		대형소매점판매지수(2005=100)	
	천명	전월비(%)	지수	전월비(%)	지수	전월비(%)
2007 08	736.6	0.5	138.7	0.9	104.9	1.7
09	738.9	0.3	140.3	1.1	109.9	4.8
10	740.2	0.2	142.5	1.6	114.3	4.0
11	739.4	-0.1	144.5	1.4	115.0	0.6
12	742.6	0.4	146.7	1.5	112.6	-2.1
2008 01	748.6	0.8	148.4	1.2	113.8	1.1
02	754.7	0.8	150.7	1.5	116.5	2.3
03	757.7	0.4	152.5	1.2	120.4	3.4
04	758.2	0.1	153.1	0.4	121.4	0.9
05	757.3	-0.1	154.9	1.2	121.6	0.2
06	761.0	0.5	157.0	1.3	122.3	0.6
07	763.2	0.3	157.3	0.2	123.0	0.6
08	767.6	0.6	158.3	0.7	124.2	0.9
09	765.0	-0.3	159.3	0.6	122.8	-1.1
10	767.5	0.3	160.6	0.8	124.2	1.1
11	767.0	-0.1	158.1	-1.6	126.9	2.2
12	767.4	0.0	150.9	-4.5	127.5	0.4
2009 01	758.5	-1.2	146.5	-2.9	126.7	-0.6
02	752.0	-0.9	144.0	-1.7	122.7	-3.2
03	740.6	-1.5	143.7	-0.2	123.7	0.8
04	741.1	0.1	144.8	0.7	122.9	-0.6
05	742.1	0.1	149.8	3.5	125.5	2.1
06	747.0	0.7	160.5	7.1	126.6	0.9
07	744.4	-0.3	171.5	6.8	128.3	1.4
08	745.1	0.1	180.7	5.4	128.4	0.1
09	749.6	0.6	188.9	4.5	129.4	0.8
10	752.1	0.3	194.9	3.1	129.1	-0.2
11	751.6	-0.1	198.8	2.0	130.9	1.4
12	746.7	-0.6	202.2	1.7	131.8	0.6
2010 01	747.0	0.0	204.9	1.3	134.9	2.3
02	749.7	0.4	206.2	0.6	137.9	2.3
03	754.5	0.6	207.5	0.7	137.4	-0.4
04	759.9	0.7	208.6	0.5	134.5	-2.1
05	762.2	0.3	211.1	1.2	131.1	-2.5
06	764.2	0.3	214.0	1.3	132.3	0.9
07	765.8	0.2	215.6	0.9	135.6	2.5
08	765.9	0.0	219.6	1.7	136.0	0.3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정조정 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구 분	전력소비량		수출액(실질)		수입액	
	Mkw	전월비(%)	천불	전월비(%)	천불	전월비(%)
2007 08	2,326,068.1	1.0	4,226,554.9	2.0	2,067,628.0	-1.4
09	2,352,705.8	1.1	4,268,198.7	1.0	2,024,161.1	-2.1
10	2,376,576.3	1.0	4,330,716.6	1.5	2,029,233.9	0.3
11	2,404,047.0	1.2	4,449,412.8	2.7	2,021,654.0	-0.4
12	2,428,814.9	1.0	4,567,917.1	2.7	2,041,530.9	1.0
2008 01	2,452,476.0	1.0	4,471,625.0	-2.1	2,028,178.1	-0.7
02	2,476,855.0	1.0	4,416,259.7	-1.2	2,087,104.6	2.9
03	2,504,555.6	1.1	4,299,592.1	-2.6	2,128,318.6	2.0
04	2,513,877.6	0.4	4,164,586.0	-3.1	2,104,634.9	-1.1
05	2,531,722.8	0.7	3,989,557.6	-4.2	2,073,893.9	-1.5
06	2,544,882.6	0.5	3,766,086.4	-5.6	2,018,745.6	-2.7
07	2,564,587.0	0.8	3,708,525.5	-1.5	2,036,918.4	0.9
08	2,575,843.9	0.4	3,735,533.0	0.7	2,009,331.4	-1.4
09	2,581,603.7	0.2	3,793,343.2	1.5	1,995,849.9	-0.7
10	2,608,532.9	1.0	3,831,980.9	1.0	1,964,274.6	-1.6
11	2,599,474.0	-0.3	3,769,763.4	-1.6	1,956,496.6	-0.4
12	2,566,560.9	-1.3	3,625,334.0	-3.8	1,912,614.7	-2.2
2009 01	2,549,114.3	-0.7	3,502,779.5	-3.4	1,787,426.7	-6.5
02	2,533,706.6	-0.6	3,332,121.4	-4.9	1,740,353.6	-2.6
03	2,520,529.7	-0.5	3,255,402.3	-2.3	1,673,065.5	-3.9
04	2,516,291.3	-0.2	3,241,820.4	-0.4	1,608,383.9	-3.9
05	2,526,444.1	0.4	3,323,441.7	2.5	1,520,292.1	-5.5
06	2,573,990.6	1.9	3,512,169.1	5.7	1,508,080.4	-0.8
07	2,606,810.1	1.3	3,708,731.2	5.6	1,525,055.8	1.1
08	2,638,797.5	1.2	3,856,513.3	4.0	1,503,245.8	-1.4
09	2,676,825.7	1.4	3,957,885.4	2.6	1,520,592.9	1.2
10	2,713,673.6	1.4	4,079,897.9	3.1	1,534,191.4	0.9
11	2,762,826.2	1.8	4,204,613.9	3.1	1,551,117.5	1.1
12	2,814,552.7	1.9	4,360,568.8	3.7	1,559,523.0	0.5
2010 01	2,889,553.1	2.7	4,462,572.1	2.3	1,604,745.0	2.9
02	2,959,247.6	2.4	4,539,520.5	1.7	1,641,840.8	2.3
03	3,024,533.4	2.2	4,642,103.9	2.3	1,657,691.7	1.0
04	3,079,805.6	1.8	4,698,918.2	1.2	1,670,814.8	0.8
05	3,135,017.1	1.8	4,806,128.2	2.3	1,713,730.3	2.6
06	3,175,755.0	1.3	4,865,430.7	1.2	1,773,916.4	3.5
07	3,195,996.3	0.6	5,004,546.0	2.9	1,780,455.8	0.4
08	3,225,543.1	0.9	5,144,920.5	2.8	1,770,288.7	-0.6

주 1) 각 구성지표 및 전월비는 계절요일 및 불규칙 요인을 제거한 수치로 통계작성기관에서 공표하는 원계열 및 계정조정계열과는 차이가 있음.

2) 최근 2~3개월분은 잠정치임.

2. 경기종합지수 주요용어 해설

충남경기종합지수 작성개요

1) 통계의 종류 및 승인번호

○ 통계의 종류 : 일반, 가공통계

○ 승 인 번 호 : 제 21308 호

2) 작성연혁

○ 2000. 7. : 통계작성 승인

○ 2009. 4. : 통계작성 수정승인

3) 작성목적

○ 생산, 투자, 소비, 고용, 무역 등 경제 각 부분의 지표 중에 경기를 잘 반영하는 주요지표를 선정, 이들의 움직임을 종합한 경기종합지수에 의하여 전체 경기의 변화방향, 국면, 전환점을 판단, 예측하기 위하여 작성

○ 지역 경기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지역경기의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수립·평가 등의 기초자료 제공

4) 구성지표(6개)

○ 비농가취업자수, 산업생산지수, 대형소매점판매지수, 전력소비량, 수출액, 수입액

5) 작성부문

○ 동행종합지수, 구성지표의 전월비 증감율, 순환변동치

6) 작성주기 및 결과공표

○ 주　　기 : 매월

○ 공표방법 및 시기 : 보도자료・인터넷 게재 : 작성대상월 익익월 15일경

○ 공표범위

- 지역 : 충청남도
- 내용 : 동행종합지수 및 구성지표

7) 기타 이용상의 유의점·제약요인

○ 경기변동은 선행·동행·후행지수를 동시에 작성하여 종합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나, 동행지수만 작성하고 있어 전체적인 경기흐름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

○ 계절변동요인, 불규칙변동요인 제거 및 순환변동치 산출 등의 방법이 상이한 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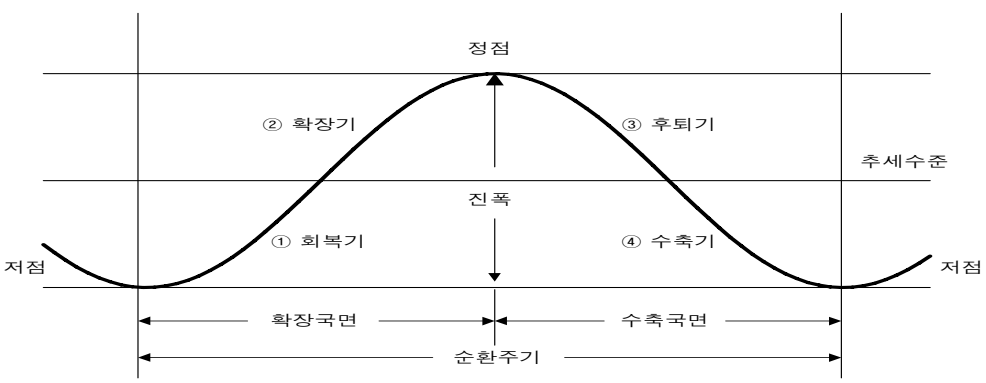
경기순환 국면

○ 경기순환이란 총체적 경제활동이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며 성장하는 현상을 의미

○ 경기순환의 국면을 구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경기저점에서 정점까지를 경제활동이 활발한 확장국면, 경기정점에서 저점까지를 경제활동이 위축된 수축국면으로 나누는 이분법이 주로 이용

○ 확장과 수축의 경기국면에서 저점에서 다음 저점까지, 또는 정점에서 다음 정점까지의 기간을 순환주기라고 하며, 순환의 강도를 의미하는 정점과 저점간의 차이를 순환진폭이라 함

경기 순환과정



기준순환일

○ 기준순환일이란 국민경제 전체의 순환변동에서 국면전환이 발생하는 경기전환점을 의미

○ 확장국면에서 수축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정점과 수축국면에서 확장국면으로 전환하는 경기저점이 있고, 개별 경기지표에서의 전환점은 특수순환일이라고 함

○ 일반적으로 총체적 경제활동 성장률이 2분기 이상 추세성장률을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으로 판단함

○ 우리나라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에서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사후적으로 발표하고 있고, 충청남도의 기준순환일은 통계청과의 협의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GDP, 산업생산 등 개별지표와 경기지수의 움직임을 분석한 후 사후적으로 발표

○ 충청남도는 지역단위로 경기동행지수를 개발한 이후인 1990년 1월 1일 이후 2007년 12월까지의 경기지수를 기초로 다음과 같이 기준순환일과 국면지속기간을 설정

충청남도 기준순환일과 국면 지속기간

구 분	기준순환일			지속기간(개월)		
	저 점	정 점	저 점	확장기	수축기	순환기
제1순환기	90.1	92.1	93.1	24	12	36
제2순환기	93.1	96.7	98.9	42	24	66
제3순환기	98.9	00.10[1)]		26		

주) 1)은 잠정치임.

경기순환과 경기지표의 변동요인

○ 일반적인 경기지표는 아래의 네 가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음

- 계절요인 : 일년동안 계절에 따른 주기적 변동
- 불규칙요인 : 천재지변, 파업 등에 따른 단기적·우발적 변동
- 추세요인 : 인구증가, 자본축적, 기술진보 등에 의한 장기적 변동
- 순환요인 : 경기의 상승과 하강에 따른 변동하는 요인

○ 경기분석에는 이들 요인 중 비경기적 요인인 계절 및 불규칙요인을 제거하고 추세·순환치 또는 순환변동치가 이용됨

순환변동치와 증감율

○ 경기지표는 계절조정계열(추세·순환치)의 전월(기)비와 순환변동치, 원계열의 전년동월(기)비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음

○ 경기 국면과 전환점을 나타내는 순환변동치가 상승하면 경기의 확장국면, 하강하면 수축국면이 되며, 순환변동치가 가장 클 때가 경기정점, 가장 작을 때가 경기저점이라함

○ 전월(기)비가 추세치 전월비를 상회하면 확장국면, 하회하면 수축국면, 통과할 때가 경기전환점이 됨. 전월비가 가장 큰 시점과 가장 작은 시점은 추세·순환변동치의 변곡점일뿐 경기전환점과는 무관

○ 전년동월(기)비도 전월비처럼 추세치 전년동월(기)비와의 관계에 의하여 국면 및 전환점을 판정하며, 전년동월(기)비의 정·저점은 경기전환점과는 무관하며, 변곡점의 위치, 국면지속기간의 크기 등에 따라 그 위치가 정해짐

경기종합지수

○ 경기종합지수는 경기변동의 국면·전환점과 속도·진폭을 측정할 수 있도록 고안된 경기지표의 일종으로, 지역경제의 각 부문을 대표하고 경기 대응성이 양호한 경제지표들을 선정한 후 이를 가공·종합하여 작성

○ 충청남도에서는 우선적으로 동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하고, 순차적으로 선행종합지수와 후행종합지수를 작성·발표할 계획으로 있음

- **동행종합지수** : 공급측면의 생산지수, 노동투입량(비농가취업자수) 등과 수요측면의 수출액 등과 같이 실제 경기순환과 함께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 현재 경기상황의 판단에 이용
- **선행종합지수** : 투자관련 허가·수주지표나 재고율, 통화량 등의 지표처럼 실제 경기순환에 앞서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수로서 향후 경기변동의 단기예측에 이용
- **후행종합지수** : 재고, 금리 등 실제 경기순환에 후행하여 변동하는 개별지표를 가공·종합하여 만든 지표로 현재 경기의 사후 확인에 이용

충남 경기종합지수 작성 계량기법

○ 지역별 경기종합지수를 작성하기 위한 계량기법은 통계청의 작성방법을 기본 틀로 하고 있음

1) 개별 구성지표의 비경기적 요인 제거

○ 경기종합지수의 작성에는 경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구성지표를 선정한 후, 첫 번째 단계로 개별 시계열자료의 비경기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요인은 X-12-ARIMA방법으로, 불규칙요인은 불규칙정도에 따라 3 또는 6개월 이동평균 방법을 이용하여 조정

① 개별 구성 지표들의 비경기적요인을 제거하기 위하여 계절조정(X-12-ARIMA) 및 불규칙조정(3또는6개월말항 이동평균)을 하여 추세순환계열($X_{i,t} = T_{i,t} \times C_{i,t}$)을 산출

② 구성 지표별로 전월대비 증감율(대칭변화율($Y_{i,t}$): symmetric percent changes)을 산출

㉮ 수준지표(level indicators)인 경우

$$Y_{i,t} = \frac{X_{i,t} - X_{i,t-1}}{X_{i,t} + X_{i,t-1}} \times 200$$

㉯ 비율지표(ratio indicators)와 영(0) 또는 음수가 포함된 경우

$$Y_{i,t} = X_{i,t} - X_{i,t-1}$$

여기서, $i = 1,2,\cdots,N$(구성지표), $t = 2,3,\cdots,T$(시점)

2) 구성지표의 표준화

○ 구성지표의 표준화란 구성지표들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순환진폭(cyclical amplitude)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각 구성지표의 순환진폭이 평균적으로 모두 같아지도록 조정하는 것

③ 진폭(변동폭)이 큰 하나의 구성 지표에 의해 종합지수가 좌우되지 않도록 각 구성 지표의 대칭변화율($Y_{i,t}$)을 절대치평균인 표준화인자(S_i)로 나누어 표준화증감율($Z_{i,t}$)을 산출

$$Z_{i,t} = \frac{Y_{i,t}}{S_i} \qquad \text{단, } S_i = \frac{\sum_{t=2}^{T} |Y_{i,t}|}{T-1} \text{(표준화인자)}$$

④ 표준화증감율($Z_{i,t}$)의 합을 구성지표수로 나누어 평균증감율(AC_t)을 산출

$$AC_t = \frac{\sum_{i=1}^{N} Z_{i,t}}{N}$$

3) 지수화

○ 동행종합지수는 매월의 평균증감율을 누적하여 원지수를 계산한 뒤, 기준년도(2000년)로 조정하여 산출

⑤ 매월의 평균증감율(AC_t)을 누적하여 지역별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산출(시작년월=100)

$$RCI_t = RCI_{t-1} \times \frac{200 + AC_t}{200 - AC_t} \qquad \text{단, } RCI_1 = 100$$

⑥ 동행종합지수 원지수(RCI_t)를 기준년도(1995년)로 조정한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를 산출(기준년도=100)

$$CI_t = \frac{RCI_t}{BASE} \times 100 \qquad \text{단, } BASE\text{는 기준년도의 } RCI_t\text{의 평균}$$

4) 경기순환 판단을 위한 보조지표

○ 동행종합지수는 경제성장에 따른 증가추세와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는데, 그 중 증가추세를 제거하고 경기의 상승·하강 움직임만을 추출하여 순환변동치를 산출

○ 우리나라는 과거 고도성장의 영향으로 강한 추세를 가지고 있어 동행종합지수의 보조지표로서 추세를 제거한 순환변동치를 산출하여 현재의 경기국면과 전환점을 보다 명확하게 측정·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음

⑦ 지역별 동행종합지수(CI_t)는 상승추세가 너무 강하여 지수 상에서 경기속도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국면 및 전환점 등 경기순환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순환변동치를 산출

$$C_t = \frac{CI_t}{T_t} \times 100$$

여기서, T_t는 H-P 필터 방법으로 산출

태형산업주식회사 www.taehyung.co.kr

절연커버류업계의 선두주자!

자연과 하나되는 태형산업의 절연카바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로
여러분의 행복하고 안전한 미래를 열어갑니다.

■ 전선휴즈

■ 시험용단자대

■ COS 카바

■ 인류클램프카바

■ 단독계기함

■ 단자 카바

저희 태형산업(주)는 창업이래 전력산업에 가장 중요한 양질의 전력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보호용 자재 생산업체로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용있는 기업으로 성장코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 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되어 새로운 기술개발에 전력하고 있으며,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새로운 아이템 개발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충남 선도기업으로 선정되어 앞으로 신기술개발은 물론, 21세기 벤처기업으로, 고객지향적인 모범 기업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 드립니다.

절연커버류 전문생산업체

태형산업(주)

본 사: 충남 금산군 금성면 하신리 776번지(금성농공단지) Tel) 041-754-6672 Fax) 041-754-8309
대리점: 대전시 동구 용전동 10-9 보성전기주식회사 Tel) 042-621-0505~6 Fax) 042-621-0507

위 기업은 2008년 충청남도가 선도기업으로 선정하여 광고를 지원합니다.